

KREI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훈 · 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훈·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동훈 | 전문연구원 | 연구기획 및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집필

박혜진 | 선임주무원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제3장 집필

연구자료 D523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주)

I S B N | 979-11-6149-623-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2022년은 우리 농업의 인력 부족, 일부 농산물 가격 하락, 국제 원자재 파동과 달러 환율 강세로 인한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 한 해였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농촌은 새롭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의 난개발 해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된다.

농업계와 비농업계 모두가 역량을 모아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촌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기회의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78명 등 국민 2,578명이 참여하였다.

이 자료가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초한 연구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및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연구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조사 대상에 도시민을 포함하기 시작하였음.
- 이 보고서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이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농촌 생활’,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 및 수요’, ‘농정현안’ 등에 대한 의식 변화와 상대적 가치 평가를 매년 조사된 결과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농업·농촌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및 방법

- 조사 내용은 2013년 문항 재설계 내용을 기초로 고정문항과 주기(매년, 격년, 3년) 문항을 선정하고 농업 관련 현안과 이슈를 포함해 조사 문항을 설계하였음.
- 조사 대상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500명임.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연구원이 자체 우편조사로 진행하였음.

주요 조사 결과

-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안정적 식량 공급’이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66.8%, 농업인(비율)은 63.3%였으며,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61.1%)을, 농업인은 ‘환경 보전’(34.0%)을 꼽았음.

○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36.5%였으며,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2.2%, 도시민(비율)은 31.5%로 응답하였음.

○ 도시민은 ‘농촌’이 가진 기능 중 ‘국토 보존 및 자연경관을 제공한다’(86.5%),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계승한다’(84.5%), ‘여가·휴가·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한다’(84.4%) 등이, ‘농업’이 가진 기능 중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한다’(90.3%), ‘자연경관 보호에 이바지한다’(87.6%)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치가 많다’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63.0%였으며, 공익적 기능 유지·확대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65.7%임. 농업인들이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4.8%, 도시민(비율)은 21.7%로 나타났음.

○ 농촌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46.5%, ‘보통이다’ 44.7%, ‘반대한다’ 8.8%로 응답하였음.

-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24.7%였음.
-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시민들은 ‘보건·의료시설 확대’(53.6%)를 가장 많이 꼽았음.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30.8%였으며,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본인과의 관계가 ‘많다’라는 응답 비율은 27.5%였음.
-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37.2%였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43.2%로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구체적인 귀농·귀촌 실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50.9%, ‘10년 이후’ 27.1%, ‘10년 내’ 22.0% 등의 순이었음. 귀농·귀촌 시 원하는 이주 형태는 ‘도시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가 43.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함께 이주할 가족으로 ‘배우자’(85.7%)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도시민이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맛)’(채소 36.3%, 육류 38.5%, 곡물 32.1%, 과일 6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도

시민(비율)은 53.5%였음.

○ 농산물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될 경우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37.9%,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35.3%,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6.8%로 나타남. 특히,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작년(31.0%) 대비 4.3%p 증가하였음.

○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84.0%, 도시민(비율)은 75.7%였으며,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7%, 도시민(비율)은 20.7%였음.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81.5%, 도시민(비율)은 47.9%로 나타났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0.9%, 도시민(비율)은 53.4%였음.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서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농업인 34.8%, 도시민 38.3%)와 ‘농산물 가격 안정’(농업인 28.7%, 도시민 34.6%)에 관심이 높았음.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농업인은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71.5%), 도시민은 ‘식량안보 및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43.0%)를 가장 많이 꼽았음.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5.8%, 도시민(비율)은 21.6%였음.

○ ‘식량안보’라는 용어를 ‘접해 보았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80.1%, ‘전혀 접해 보지 않았다’ 19.9%였음. 또한, ‘식량자급률’ 역시 ‘접해 보았다’ 80.0%, ‘전혀 접해 보지 않았다’ 19.9%로 ‘식량안보’와 비슷하게 나타났음.

○ 10년 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개선되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7.7%, 도시민은 28.8%였음. 또한,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농업인 19.4%, 도시민 31.3%로 나타났음.

○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극한 기후 현상(심각한 가뭄, 홍수 등) 및 기후변화’(각각 85.2%, 77.5%)를 가장 많이 꼽았음. 우리나라의 적정 식량자급률 수준에 대해서는 ‘50% 이상~60% 미만’이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30.1%, 도시민(비율)은 35.1%로 나타났음.

○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52.2%, 도시민(비율)은 35.6%였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72.5%, ‘심각하지 않다’는 4.1%에 그침. 또한, 식품 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으로 ‘농축산물 및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포장재 사용 줄이기’(40.0%)를 가장 많이 꼽았음.

○ 평소 로컬푸드 매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64.7%, ‘주 1회 이상’은 8.6%임. 로컬푸드 매장 이용자(n=529)는 ‘로컬푸드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다’ 71.6%, ‘신뢰도가 높아졌다’ 68.6%, ‘지역 농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 65.8%, ‘로컬푸드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다’ 38.2%라고 응답하였음. 로컬푸드 이용의 불편한 점으로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음’(47.1%)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없다’(46.7%)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농업인들은 ‘보장 수준 확대’(60.1%)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업용 면세유 지원, 직불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92.7%였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지 면적, 주로 기르는 작물이나 축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44.3%)을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정보가 직불제 등 정책사업과 바로 연결되도록’(62.5%)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15.3%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기간은 ‘6년 이상’ 20.6%, ‘3년 이상 4년 미만’ 20.6%였음.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장점과 애로사항으로 ‘소량 생산’이라고 응답하였음.

○ 5년 전과 비교해 올해의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8%, 현재 농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3.1%, 올해와 비교해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3%로 나타났다.

○ 현재 농촌 생활의 분야별 만족도는 ‘이웃과의 관계’ 45.0%, ‘주거환경’ 41.1%, ‘쓰레기 및 환경 관리’ 29.2%, ‘보건의료’ 26.6%, ‘대중교통’ 23.4%, ‘교육환경’ 20.0%, ‘문화체육여가’ 16.8%, ‘소득원 및 일자리’ 13.4% 등의 순이었음.

○ 현재 농업인의 가장 큰 고민은 ‘농업소득 감소’(55.4%), ‘건강과 질병’(41.5%)을 꼽았으며, 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폐가, 방치된 공간(빈집)’(54.9%)라고 응답하였음.

○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으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함’(47.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취미·문화 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부족함’(각각 40.4%, 30.8%, 39.6%, 31.6%)이라고 응답하였음.

- 거주하는 마을에서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70.5%였으며,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51.8%였음.
-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3.7%, ‘불만족스럽다’는 48.9%임. 불만족한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 여건이 나빠졌다’(67.7%)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31.3%, 현재 얻고 있는 소득 만족도가 ‘높다’는 12.8%임. 직업 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2.7%)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최근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중복응답, 100%로 환산함)로 ‘농업 생산비 증가’(23.5%), ‘일손 부족’(16.8%) 등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이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73.1%였음.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군단위 농업·농촌 전담 인력수급회사 설립’(47.1%)을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71.2%,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8%였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농사만으로 생계가 힘들어서’(81.0%)와 ‘건강이 좋지 않아서’(7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해오던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84.3%), ‘경제적 문제, 생계 해결을 위해서’(65.3%)라고 응답하였음.

○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경우 농지 처리 방법으로 ‘농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27.5%,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겠다’ 21.8% 등으로 응답하였음. 향후 자식, 친척 또는 주변인 등에게 영농기반을 물려 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60.6%였으며, 후계자로 ‘자녀’(68.0%)라는 응답이 높았음. 영농기반을 물려 줄 의향이 없는 이유로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61.2%)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계획은 ‘은퇴계획이 따로 없고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처럼 종사하겠다’(43.7%), ‘적당한 시기에 부분 처분(임대) 후 규모를 줄여 본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겠다’(23.4%), ‘적당한 시기에 후계자에게 부분 승계 후 본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후계자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겠다’(14.7%) 등의 순이었음.

정책 제언

○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함. 한편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함. 이 외에도 도시민과 농업인은 ‘식품

안전성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였음.

○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음. 이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나타남. 영농활동보다는 개인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겠음.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함. 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등인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다양한 위협 요소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22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관심을 끈 이슈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경우 주로 환경과 먹거리를, 농업인은 농업소득 관련 분야에 관심이 높았음.

○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안보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 특히 농업인이 식량안보 관련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식량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로 기후변화, 농업 인구 감소, 농업 생산 정체 및 수입 의존도 증가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을 요인으로 인식함. 이와 같은 위협 요소에 대응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겠음.

○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보장 수준, 정부 보조율, 보장 재해 범위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임.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2022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has operated a system of local respondents selected from rural communities. KREI has surveyed its local respondents at the end of every year to understand changes in farmers' opinions. With urban residents added in the survey pool in 2006, KREI has tracked changes in the opinions of farmers (producers) and urban residents (consumers and taxpayers) regard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rough this survey, KREI has identified their policy demand.
- Based on the questions redesigned in 2013, our survey questionnaire included fixed questions and periodic questions (for every year, every other year, or every three years)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issues.
- The 2022 survey, which targeted 1,500 urban residents and 2,500 farmers, used face-to-face interviews for the former through a pollster and mail questionnaires for the latter.
- Both farmers and urban residents selected a stable food supply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present. As their important function in the future, however, farmers select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ile urban residents selected a stable

food supply.

- A considerable number of urban residents thought positively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were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es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value. Also, urban residents thought that farmers have not received sufficient rewards compared to their contribution to the public value.
- The proportion of those who expect a healthy and relaxed life in a clean rural environment increased in urban residents who want to move to rural areas. In addition, many urban residents wanted to settle in rural areas or reside both in a city and in a rural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rural liv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those who want to move to rural areas.
- Farmer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ir job and living decreased compared to 2021. Farmers pointed out the following as the biggest threats to farm management: a ri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labor shortages; and extreme weather events and changes in cultivation conditions due to climate change. Since there are diverse threats other than these,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by area helpful in the field.
- Natural disasters and agricultural price stabilization were the issues

that attracted both farmers' and urban residents' attention in 2021, which implies that the respondents are highly interested in the areas that can directly affect price stabilization. Concerning other issues, farmers and urban residents showed a relatively high interest in different areas: the former in agricultural income-related areas; and the latter in the environment and food.

- Regarding crop disaster insurance, farmers demanded the expansion of the coverage level, the government subsidy rate, the scope of disasters covered, etc.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armer-centered plans to improve the insuranc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need for the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holdings was very high. Efforts are need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of the holdings.

Researchers: Kim Donghoon, Park Hyejin

Research period: 2022. 1. - 2022. 12.

E-mail address: donghoon@krei.re.kr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 방법	4
3. 자료 처리 및 분석	10

제2장 조사 결과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13
2.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27
3. 농업경영 및 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39
4.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64

제3장 농정 건의 및 제언 89

부록

1. 농정 건의 전문(농업인·도시민)	95
2. 설문 조사표(농업인·도시민)	113

참고문헌 136

표 차례

제1장

〈표 1-1〉 조사 개요	4
〈표 1-2〉 조사 문항 상세 내용	5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9
〈표 1-4〉 자료 처리 절차	10

제2장

〈표 2-1〉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정도(연도별)	14
〈표 2-2〉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17
〈표 2-3〉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18
〈표 2-4〉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관련 가치 인식도(도시민)	21
〈표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견(도시민) ...	22
〈표 2-6〉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24
〈표 2-7〉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연도별 인식(도시민)	25
〈표 2-8〉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 및 관련성 인식(도시민)	28
〈표 2-9〉 은퇴 후 귀농·귀촌 연도별 의향	29
〈표 2-10〉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	30
〈표 2-11〉 귀농·귀촌 구체적 시기	31
〈표 2-12〉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 인식	33
〈표 2-13〉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여부(도시민)	35
〈표 2-14〉 우리 농산물에 대한 연도별 구매 충성도(도시민)	36
〈표 2-15〉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37
〈표 2-16〉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38
〈표 2-17〉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40

〈표 2-18〉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한 분야별 ‘만족한다’	41
〈표 2-19〉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 변화(연도별)	43
〈표 2-20〉 연도별 올해 농사 만족도	44
〈표 2-21〉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46
〈표 2-22〉 농업인과 전체 산업 재직자의 직업 만족도 비교	48
〈표 2-23〉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49
〈표 2-24〉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중복응답, 100% 환산)	50
〈표 2-25〉 분야별 시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중복응답)	52
〈표 2-26〉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	53
〈표 2-27〉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정도	54
〈표 2-28〉 마을주민과의 관계 및 거주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여부	54
〈표 2-29〉 지난 1년간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에 어려움 정도	55
〈표 2-30〉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 고려 시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	68
〈표 2-31〉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중복응답)	80
〈표 2-32〉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성 인지도	80
〈표 2-3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	81
〈표 2-34〉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여부	83
〈표 2-35〉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한국·EU)	86
〈표 2-36〉 유기농 식품 관련 인식 수준(한국·EU)	88

제3장

〈표 3-1〉 농정 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993건, 농업인 843건)	94
---	----

제2장

〈그림 2-1〉 현재 및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중복응답)	16
〈그림 2-2〉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17
〈그림 2-3〉 ‘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	19
〈그림 2-4〉 ‘농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	20
〈그림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추가 부담 ‘찬성’	23
〈그림 2-6〉 공익적 기능 증진 기여도에 따른 농업인의 보상 여부	23
〈그림 2-7〉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중복응답)	26
〈그림 2-8〉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과 관련이 ‘많다’	28
〈그림 2-9〉 귀농·귀촌 시 원하는 이주 형태	32
〈그림 2-10〉 귀농·귀촌 시 함께 이주할 가족(중복응답)	32
〈그림 2-11〉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34
〈그림 2-12〉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농촌 생활 수준	40
〈그림 2-13〉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 변화 예상	42
〈그림 2-14〉 5년 전-현재-5년 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만족도 변화	43
〈그림 2-15〉 연도별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45
〈그림 2-16〉 연도별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47
〈그림 2-17〉 현재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중복응답)	51
〈그림 2-18〉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복응답)	52
〈그림 2-19〉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	56
〈그림 2-20〉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빈도	56
〈그림 2-21〉 농업을 은퇴하고 싶은 이유(중복응답)	57
〈그림 2-22〉 농업을 은퇴하고 싶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58
〈그림 2-23〉 농업 은퇴 시 농지 처리 방법	59

〈그림 2-24〉 향후 자식, 친척 또는 주변인 등에게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 여부	59
〈그림 2-25〉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후계자와의 관계	60
〈그림 2-26〉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없는 이유	61
〈그림 2-27〉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계획	62
〈그림 2-28〉 관행 퇴비 사용량 대비 농업인 개인의 퇴비 사용량	62
〈그림 2-29〉 퇴비를 관행보다 적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63
〈그림 2-30〉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5
〈그림 2-31〉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중복응답)	66
〈그림 2-32〉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중복응답)	67
〈그림 2-33〉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정도 인식	69
〈그림 2-34〉 연도별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정도 인식	70
〈그림 2-35〉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용어 인지 여부	71
〈그림 2-36〉 10년 전·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	72
〈그림 2-37〉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중복응답)	73
〈그림 2-38〉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	74
〈그림 2-39〉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역할 수준	75
〈그림 2-40〉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심각성 정도	76
〈그림 2-41〉 식품 소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1순위)	76
〈그림 2-42〉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빈도	77
〈그림 2-43〉 로컬푸드 이용에 따른 인식 변화	78
〈그림 2-44〉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시 불편한 점(중복응답)	79
〈그림 2-4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중복응답)	82

〈그림 2-46〉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기간	83
〈그림 2-47〉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장점(중복응답)	84
〈그림 2-48〉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의 애로사항(중복응답)	85
〈그림 2-49〉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의 주요 책임(중복응답)	87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또한, 2006년부터는 조사 대상에 도시민도 포함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이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 특히, ‘농업경영과 농촌 생활’,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 및 수요’, ‘농정현안 등에 대한 의식 변화와 상대적 가치 평가’ 등의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업·농촌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자체 우편조사를 실시함.¹⁾
- 도시민은 전국(제주 포함)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표본 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표본추출을 실시함. 신뢰수준은 95%,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pm 2.5\%p$ 임.
- 농업인은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²⁾ 2,5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유효응답 1,078명(응답률 43%)을 분석 대상으로 함.

〈표 1-1〉 조사 개요

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22년 11월 14일~12월 19일	2022년 11월 14일~12월 19일
조사 대상	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방법	우편조사	면접조사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078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모범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오차	고정표본 사용	$\pm 2.5\%p$ (95% 신뢰수준)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 저자 작성.

- 1) 이 조사는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도시민)와 패널 형태(농업인) 조사를 병행함.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모범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력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 문항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문항 재설계 작업에 기초하여, 고정문항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고 농업 관련 현안과 이슈를 포함해 조사 문항을 설계함. 농업인 대상 조사 문항은 고정문항과 정책현안 등 40문항으로, 도시민 대상 조사 문항은 35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1-2〉 조사 문항 상세 내용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경영에 대한 의식	올해 농사 만족도	○	-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	-
	직업 만족도	○	-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	○	-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 인식	○	○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인식	○	○
	지난 1년간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에 어려움 정도	○	-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빈도	○	-
	농업에서 은퇴하고 싶은 이유	○	-
	농업에서 은퇴하고 싶지 않은 이유	○	-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경우 농지 처리 방법	○	-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 여부	○	-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후계자와의 관계	○	-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없는 이유	○	-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 계획	○	-
	관행적인 퇴비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퇴비 사용량	○	-
	퇴비를 관행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
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 수준 변화	○	-
	농촌 생활 만족도	○	-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 변화 예상	○	-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 인식	○	○
	분야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	○	-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	-

(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인과의 관계	○	-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정도	○	-
	현재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1순위)	○	-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	○
	농업·농촌의 애착 정도	○	○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	○	-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방향에 대한 인식	○	○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	○	○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 대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	○
	10년 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	○	○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	○	○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	○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	○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 관심 정도	-	○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	-	○
	'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의 중요성	-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금 추가 부담 찬반 여부	-	○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	○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	○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은퇴 후 귀농·귀촌 의사	-	○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	-	○
	귀농·귀촌 실천 계획 시기	-	○
	귀농·귀촌 시 원하는 이주 형태	-	○
	귀농·귀촌 시 함께 이주할 가족	-	○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여부	-	○
	향후 농산물시장 개방 시 농산물 구입 행태	-	○

(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	○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	○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	○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역할 수준	○	○
	공익적 기능 증진 기여에 따른 농업인 보상 여부	○	○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 사실 인지 여부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여부	○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의 장점	○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애로사항	○	-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용어 인지 여부	-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심각성 정도	-	○
	식품 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개인의 실천 방법	-	○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빈도	-	○
	로컬푸드 이용으로 인한 인식 변화	-	○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시 불편한 점	-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	○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의 주요 책임	-	○
	유기농 식품 관련 진술 동의 여부	-	○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	○

자료: 저자 작성.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은 ‘특별·광역시’(51.3%)와 ‘일반시’(48.7%)에 주로 거주함.

-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였음.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1.6%), ‘화이트칼라’(24.7%), ‘자영업’(19.7%) 비율이 높았음.

○ 농업인의 영농형태는 ‘수도작’(22.9%)과 ‘과수’(22.7%) 비율이 높았음.

- 연령은 ‘60세 이상’이 66.4%로 과반수 이상이었음.
-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51.2%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도 37.6%였음.
-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7%였음.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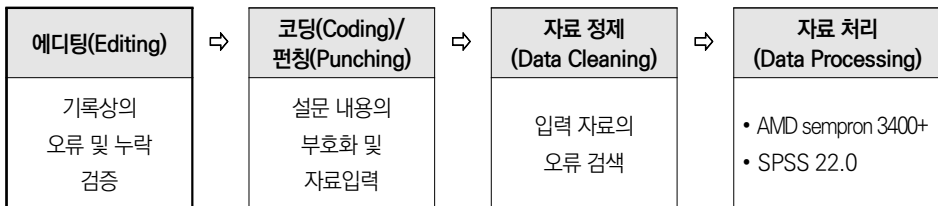
농업인(n=1,078)				도시민(n=1,500)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99	9.2	지역별	서울	346	23.1
	부산/울산/경남	139	12.9		인천/경기	515	34.3
	대구/경북	190	17.6		부산/경남/울산	216	14.4
	광주/전라	265	24.6		대구/경북	123	8.2
	대전/충청/세종	244	22.6		광주/전라	120	8.0
	제주/강원	121	11.2		대전/충청	133	8.9
	무응답	20	1.9		제주/강원	47	3.1
연령별	60세 미만	242	22.4	지역	특별/광역시	769	51.3
	60세 이상	716	66.4	규모별	일반시	731	48.7
	무응답	120	11.1	성별	남자	758	50.5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552	51.2		여자	742	49.5
	대졸 이상	405	37.6	연령별	19~29세	292	19.5
	무응답	121	11.2		30대	270	18.0
영농경력별	20년 미만	328	30.4		40대	330	22.0
	20년 이상	622	57.7		50대	337	22.5
	무응답	128	11.9		60세 이상	271	18.1
영농형태별	수도작	247	22.9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56	3.7
	과수	245	22.7		고졸	637	42.5
	노지채소	129	12.0		대재 이상	807	53.8
	축산	71	6.6	가구원 수별	2명 이하	421	28.1
	시설원예	115	10.7		3명	453	30.2
	특작	99	9.2		4명	569	37.9
	기타	41	3.8		5명 이상	57	3.8
	무응답	131	12.2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75	5.0
연평균 농업소득	2천만 원 미만	405	37.6		2천만~4천만 원 미만	365	24.3
	2천만 원 이상	550	51.0		4천만~7천만 원 미만	832	55.5
	무응답	123	11.4		7천만 원 이상	228	15.2
월평균 생활비	2천만 원 미만	283	26.3	월평균 생활비	100 만 원 미만	103	6.9
	2천만 원 이상	669	62.1		100만~150만 원	198	13.2
	무응답	126	11.7		150만~200만 원	306	20.4
월평균 생활비	70만 원 미만	63	5.8		200만~300만 원	482	32.1
	70만~100만 원	108	10.0		300만~500만 원	376	25.1
	100만~150만 원	187	17.3		500만 원 이상	35	2.3
	150만~200만 원	205	19.0	직업별	화이트칼라	371	24.7
	200만 원 이상	393	36.5		블루칼라	474	31.6
	무응답	122	11.3		자영업	296	19.7
					학생	96	6.4
					주부	218	14.5
					기타	45	3.0
				농촌거주 경험	있다	540	36.0
					없다	960	64.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인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치고,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 22.0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음.
- 농업인, 도시민 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정리함.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19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 처리 절차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조사 결과



2

조사 결과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애착심 정도, 현재 및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농촌지역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도시민에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 농업·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에 대한 중요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및 비용 부담 의향, 농업인들이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 여부, 타 산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질문하였음.

1.1.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많다’, 도시민 최근 3년간 30%대 초반

○ 농업·농촌에 애착심이 ‘많다’(‘매우 많다’와 ‘대체로 많은 편’ 합산)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32.1%, 농업인(비율)은 70.6%로 조사되었음. 또한,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합산)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29.3%, 농업인(비율)은 5.2%로 나타남.

- 농업·농촌에 애착심이 ‘많다’라는 도시민은 40대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42.6%), 주부(41.3%) 계층에서,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55.4%), 가족이 농사를 짓는 계층(63.6%)에서 높게 조사되었음.

○ 애착심이 ‘많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율은 2018년 52.2%에서 2020년 31.4%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 32.1%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 농업인들 역시 2018년 91.8%에서 2022년 70.6%로 많이 감소하였음.

〈표 2-1〉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정도(연도별)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우 많다	27.8	31.1	22.3	19.4	60.5	23.3	16.6	22.3	21.8	8.9	11.9	7.1	6.4	14.7	4.5	3.2	4.2	3.9	
대체로 많은 편	45.7	43.0	45.3	50.0	31.3	55.0	54.5	51.7	48.8	29.7	31.7	32.5	35.2	37.5	34.0	28.2	27.8	28.2	
많다(소계)	73.4	74.1	67.6	69.4	91.8	78.2	71.1	74.0	70.6	38.6	43.6	39.7	41.6	52.2	38.5	31.4	32.0	32.1	
보통	18.9	19.3	21.4	20.7	6.2	17.0	23.6	22.4	22.3	39.5	35.7	35.4	33.6	31.1	36.9	40.6	38.1	38.6	
별로 없다	5.3	4.7	8.0	6.9	1.4	3.8	4.0	2.9	4.4	19.9	17.2	21.2	22.7	16.2	22.2	23.6	26.2	25.3	
전혀 없다	0.3	0.4	1.6	0.3	0.2	0.3	0.9	0.3	0.8	2.0	3.4	3.7	2.1	0.6	2.5	4.5	3.7	4.0	
없다(소계)	5.6	5.1	9.5	7.2	1.6	4.1	4.9	3.2	5.2	21.9	20.6	24.9	24.8	16.8	24.7	28.1	29.9	29.3	
모름/무응답	2.1	1.6	1.5	2.6	0.5	0.6	0.4	0.4	1.9	-	-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1.2.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 기능: 도시민 ‘안전한 먹거리’, 농업인 ‘환경 보전’

○ 도시민은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66.8%), ‘식품 안전성 향상’(49.1%), ‘지역 활성화’(35.5%), ‘환경 보전’(19.3%), ‘여가 공간 활용’(14.9%), ‘문화유산 보존·계승’(10.3%) 순으로 꼽아 농업·농촌의 기능 중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래의 농업·농촌의 기능 역시 ‘안정적 식량 공급’(61.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식품 안전성 향상’(52.3%), ‘지역 활성화’(32.7%), ‘환경 보전’(21.3%), ‘여가 공간 활용’(15.8%), ‘문화유산 보존·계승’(14.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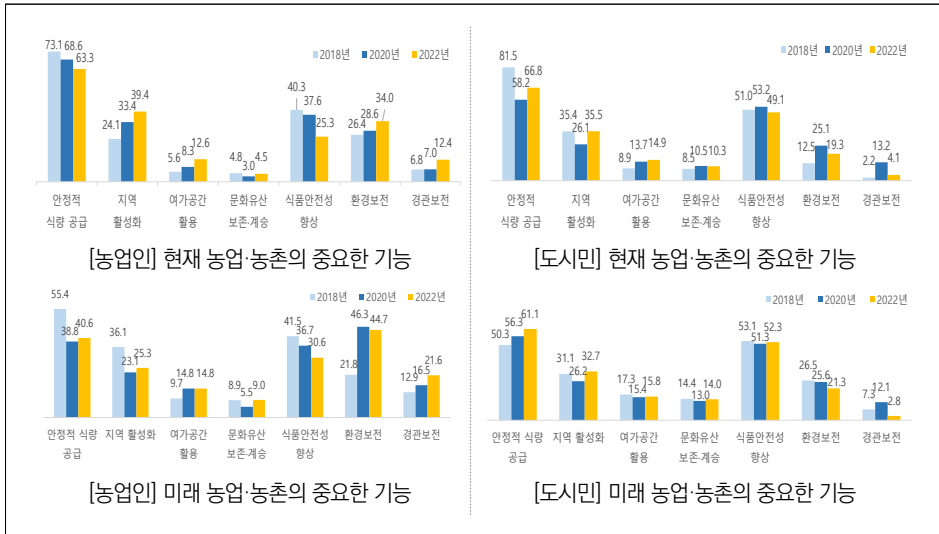
- 연도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도시민은 지속적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 ‘환경 보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또한, 농업인들은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63.3%), ‘지역 활성화’(39.4%), ‘환경 보전’(34.0%), ‘식품 안전성 향상’(25.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미래의 농업·농촌의 기능도 ‘환경 보전’(44.7%), ‘안정적 식량 공급’(40.6%), ‘식품 안전성 향상’(30.6%) 등의 순으로 꼽아 도시민들보다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농업인의 응답 중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은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감소하고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여가 공간 활용’, ‘경관 보전’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경관 보전’이 증가하고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림 2-1〉 현재 및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중복응답)

단위: %



주 1)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2) '응답 항목' 변경에 따라 2018년도부터 비교 가능하며, 과거 조사 결과는 제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3. 타 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 2013년 대비 '긍정' 증가 추세

○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이다'라는 농업인은 36.5%, '부정적이다'는 46.1%, '비슷하다' 15.4%로 조사되었음.

- 계층별로는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긍정적(각 44.0%, 41.0%)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2〉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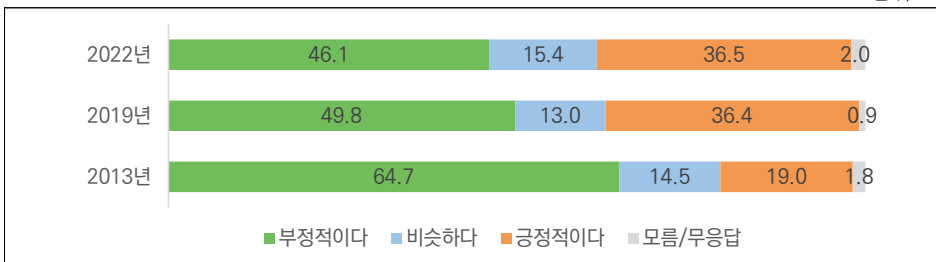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 (소계)	비슷 하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 (소계)	무응답
전체		6.6	39.5	46.1	15.4	30.0	6.5	36.5	2.0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8.1	46.4	54.6	16.8	23.7	3.2	26.9	1.7
	2천만 원 이상	5.1	35.1	40.2	13.8	34.9	9.1	44.0	2.0
	모름/무응답	8.1	36.6	44.7	17.9	28.5	5.7	34.1	3.3
전체농가 소득	2천만 원 미만	8.5	44.9	53.4	17.7	23.3	3.2	26.5	2.5
	2천만 원 이상	5.5	38.0	43.5	13.9	33.0	7.9	41.0	1.6
	모름/무응답	7.9	35.7	43.7	18.3	28.6	6.3	34.9	3.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2013년 19.0%에서 2022년 36.5%로 증가 추세이며, ‘부정적이다’는 2013년 64.7%에서 2022년 46.1%로 18.6%p의 큰 감소를 보였음.

〈그림 2-2〉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4.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희망적’,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높아

-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를 ‘희망적이다’라고 인식한 비율은 농업인 22.2%, 도시민 31.5%였음. 또한, ‘비관적이다’는 농업인 52.5%, 도시민 22.0%로 나

타나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희망적이다’라는 농업인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영농형태는 특작(28.3%)과 노지채소(27.9%)에서 높게 나타남.

〈표 2-3〉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09	2011	2012	2013	2016	2019	2022	2009	2011	2012	2013	2016	2019	2022
매우 희망적	1.9	2.7	2.2	1.1	2.1	1.7	2.4	1.7	2.5	1.2	0.8	1.1	2.8	0.9
희망적인 편	18.3	19.5	19.3	17.2	17.0	19.1	19.8	28.3	21.7	19.2	26.5	31.9	28.9	30.6
희망적(소계)	20.2	22.2	21.5	18.3	19.1	20.8	22.2	30.0	24.2	20.4	27.3	33.0	31.7	31.5
보통	29.4	25.6	22.2	26.3	22.6	25.5	23.2	40.3	42.1	42.5	42.5	45.1	51.0	46.5
비관적인 편	41.3	42.2	44.6	42.9	45.9	45.6	43.5	27.3	32.4	34.6	27.9	20.5	16.8	21.0
매우 비관적	8.4	8.1	9.7	11.4	11.0	7.6	9.0	2.3	1.3	2.4	2.4	1.4	0.5	1.0
비관적(소계)	49.7	50.3	54.3	54.3	56.9	53.1	52.5	29.6	33.7	37.0	30.3	21.9	17.3	22.0
모름/무응답	0.8	2.0	2.1	1.1	1.5	0.5	2.1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3년 이후부터 3년 주기 조사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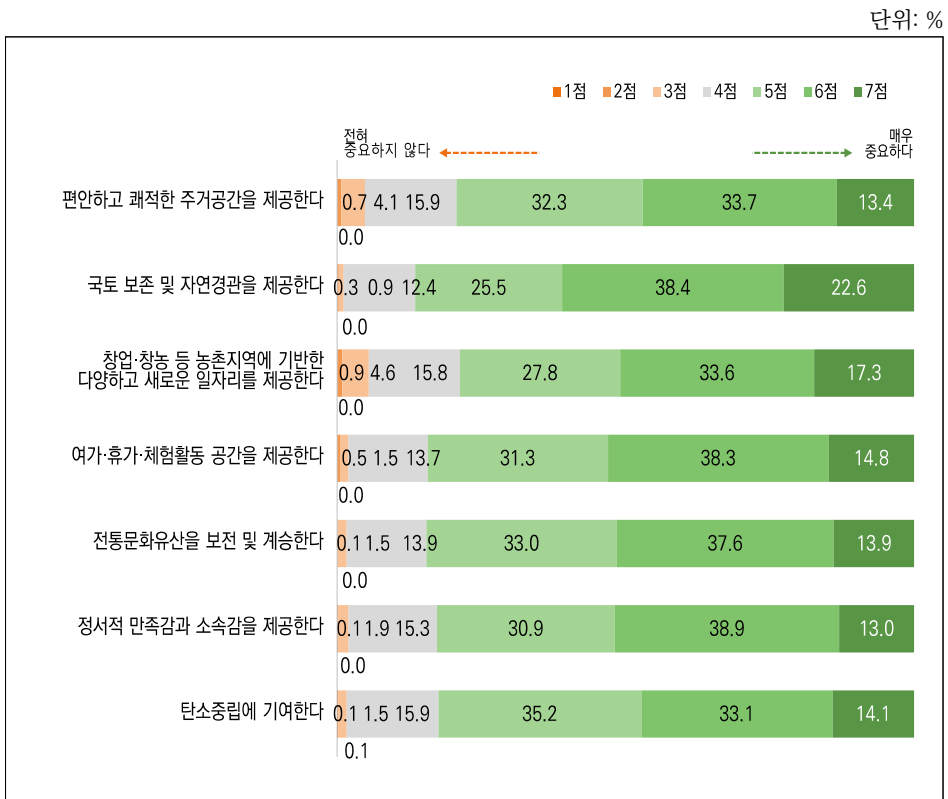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5. 도시민 80%, 농업·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 ‘중요하다’

○ 도시민 조사 결과 ‘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 중 ‘국토 보존 및 자연경관을 제공한다’라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및 계승한다’(84.5%), ‘여가·휴가·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한다’(84.4%), ‘정서적 만족감 및 소속감을 제공한다’(82.8%), ‘탄소중립에 기여한다’(82.4%),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79.4%), 창업·창농 등 농촌지역에 기반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78.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5점, 6점, 7점 합산)고 응답하였음.

- 최근 농촌 경관이 가지는 특수성과 고유성은 큰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모습과 여기에 숨겨진 전통과 문화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은 농촌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임.

〈그림 2-3〉 ‘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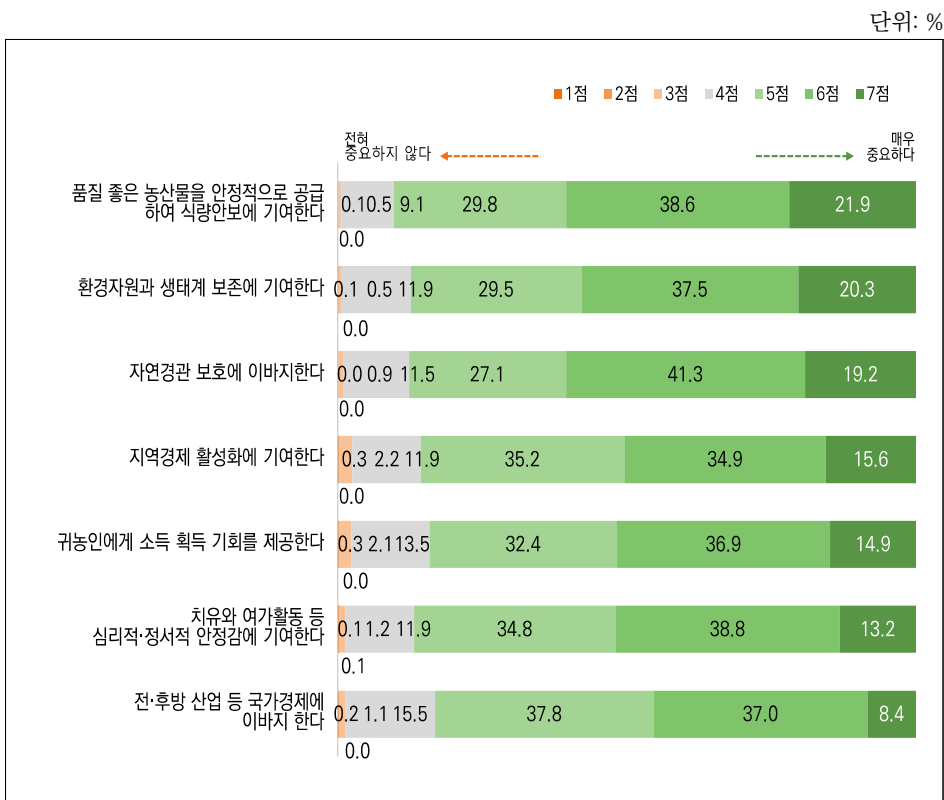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가 9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연경관 보호에 이바지한다’(87.6%), ‘환경자원과 생태계 보존에 기여한다’(87.3%), ‘치유와 여가활동 등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에 기여한다’(86.8%),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85.7%), ‘귀농인에게 소득 획득 기회를 제공한다’(84.2%), ‘전·후방 산업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83.2%)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5점, 6점, 7점 합산)고 응답하였음.

- 특히, 식품 안전, 깨끗한 환경,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것임.

〈그림 2-4〉 ‘농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위해 세금 더 내겠다 65.7%,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아

○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63.0%는 ‘가치가 많다’(‘매우 많다’와 ‘많은 편이다’ 합산)라고 응답하였음. ‘보통’은 30.7%, ‘가치가 없다’(‘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 합산)는 6.3%였음.

- ‘가치가 많다’라는 응답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농촌 거주 경험자,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6.2%에서 2022년 63.0%로 증가하였음.

〈표 2-4〉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관련 가치 인식도(도시민)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우 많다	14.3	21.6	8.0	6.8	18.4	8.7	10.1	11.9	11.8	7.0	8.1	22.5	8.7	7.8	10.1	5.0
많은 편이다	39.3	41.8	50.6	49.1	45.7	53.3	43.7	54.3	58.7	55.1	61.9	49.7	55.5	48.4	49.3	58.0
많다(소계)	53.6	63.5	58.6	55.9	64.1	61.9	53.7	66.2	70.5	62.1	70.0	72.2	64.2	56.2	59.4	63.0
보통이다	33.7	28.5	33.1	35.7	29.9	33.1	33.5	29.5	26.1	31.3	26.5	22.9	30.4	34.6	32.2	30.7
별로 없다	11.9	7.4	8.0	7.2	5.6	0.3	12.1	4.1	3.3	6.5	3.5	4.7	5.1	8.7	7.7	5.9
전혀 없다	0.8	0.6	0.3	1.2	0.3	4.7	0.7	0.2	0.1	0.2	0.0	0.1	0.3	0.4	0.7	0.4
없다(소계)	12.7	8.0	8.3	8.4	5.9	4.9	12.7	4.3	3.5	6.7	3.5	4.8	5.3	9.2	8.4	6.3
무응답	-	0.1	-	-	0.1	-	-	-	-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적극 찬성’과 ‘찬성’ 합산)하는 도시민은 65.7%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3.9%, ‘잘 모르겠다’는 10.3%로 나타남.

-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4.9%), 자영업(69.6%), 농촌

거주 경험자(71.9%),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7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20년 53.3%, 2021년 60.1%, 2022년 65.7%로 매년 상승했으며, ‘반대’ 의견은 2020년 37.1%, 2021년 27.9%, 2022년 23.9%로 하락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이후 도시민 상당수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 의사도 높아진 것으로 보임.

〈표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견(도시민)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적극 찬성	5.0	6.5	3.2	4.2	7.7	2.9	14.9	4.3	3.7	1.4	9.6	14.5	18.4	7.7	17.8	16.5
찬성한다	34.1	34.0	47.1	55.5	45.0	42.1	45.1	46.6	55.7	53.2	44.2	38.5	41.8	45.5	42.3	49.3
찬성(소계)	39.1	40.5	50.3	59.7	52.7	45.0	60.0	50.9	59.5	54.6	53.8	53.0	60.2	53.3	60.1	65.7
반대한다	24.7	22.1	32.4	36.7	29.3	38.9	29.2	31.3	27.7	32.2	38.7	32.4	34.7	33.6	25.9	22.7
적극 반대	3.7	4.6	9.5	3.6	6.4	9.0	2.8	6.7	5.0	6.6	2.7	5.5	1.4	3.4	1.9	1.3
반대(소계)	28.4	26.7	41.9	40.3	35.7	47.9	32.0	38.0	32.7	38.8	41.4	37.9	36.2	37.1	27.9	23.9
잘 모르겠다	32.5	32.9	7.8	-	11.5	6.9	7.9	11.0	7.8	6.6	4.8	9.0	3.6	9.7	12.1	10.3
무응답	-	-	-	-	-	0.2	-	-	-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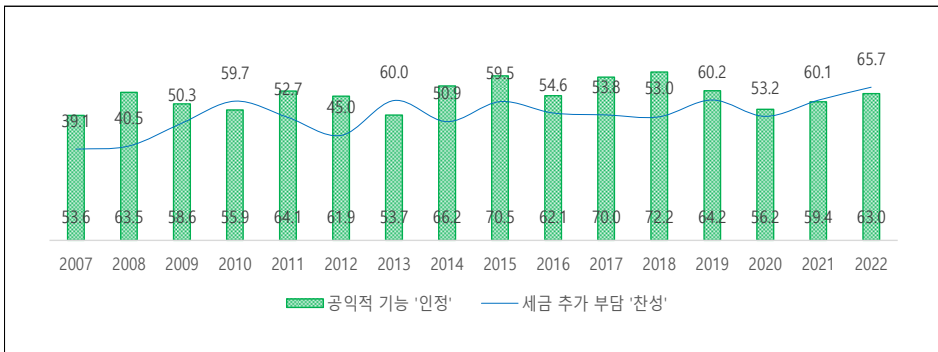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매년 도시민 응답자의 과반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공익적 기능 유지와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07년 39.1%에서 2022년 65.7%로 26.6%p 증가하였음.

-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공익적 기능 인정’ 응답이 ‘세금 추가 부담 찬성’ 응답보다 높았으나 2021년부터 ‘세금 추가 부담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아짐.

〈그림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추가 부담 ‘찬성’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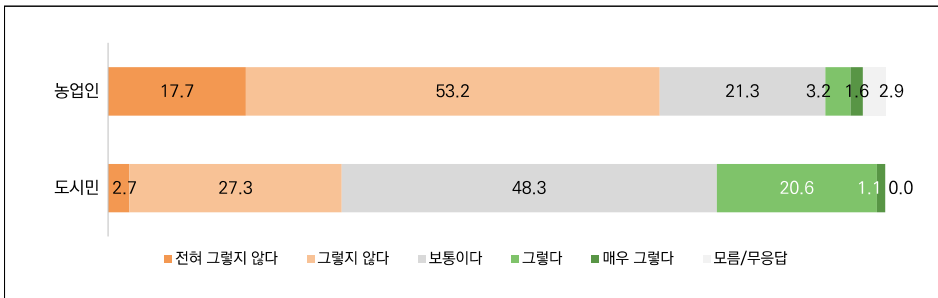
1.7.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 도시민들은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합산) 30.0%,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합산) 21.7%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8.3%p 높게 나타남.

- 한편, 농업인은 ‘그렇다’ 4.8%, ‘그렇지 않다’ 70.9%였음.

〈그림 2-6〉 공익적 기능 증진 기여도에 따른 농업인의 보상 여부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1.8. 타 산업(직업) 대비 농업의 사회적 인식 ‘보통 이상’ 70%

○ 도시민은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긍정적이다’ 24.7%, ‘부정적이다’ 29.6%, ‘보통이다’ 응답은 45.7%로 나타남.

○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2019년(31.1%) 대비 6.4%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9%p 증가해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은 70.4%로 조사되었음.

〈표 2-6〉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단위: %

구분	2017년	2019년	2022년
매우 긍정적이다	0.3	1.6	0.7
대체로 긍정적이다	29.1	29.5	24.0
긍정적이다(소계)	29.4	31.1	24.7
보통이다	33.3	42.8	45.7
대체로 부정적이다	36.5	23.7	28.6
매우 부정적이다	0.9	2.3	1.0
부정적이다(소계)	37.3	26.1	29.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참고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 한국의 직업 정보’(최기성, 이은수, 2021) 발표에 따르면, 농림어업직 재직자들은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그렇다’와 ‘아주 그렇다’ 합산)는 28.8%, ‘그렇지 않다’(‘아니다’와 ‘전혀 아니다’ 합산)는 25.9%로 응답하였음.

1.9. 도시민,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

○ 농촌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해 도시민 46.5%가 ‘찬성한다’(‘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 합산)라고 응답하여, ‘반대한다’(‘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 합산) 8.8%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남. 한편, ‘보통이다’는 44.7%였음.

○ ‘찬성한다’와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6년 2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2-7〉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연도별 인식(도시민)

단위: %

구분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적극 찬성	12.9	20.2	6.4	6.7	16.2	5.5	4.1	7.8	5.2	1.1	4.1	5.5	5.6	2.0	4.0	3.3
찬성한다	62.5	53.1	57.0	56.8	51.9	50.5	45.9	46.4	56.7	34.0	47.1	42.3	40.9	43.0	45.7	43.3
찬성(소계)	75.4	73.3	63.4	63.5	68.1	56.1	50.0	54.2	61.9	35.1	51.3	47.8	46.5	45.0	49.7	46.5
보통이다	21.3	22.7	31.4	30.1	25.3	31.8	37.0	38.7	30.3	36.8	33.9	37.7	39.6	44.2	40.3	44.7
반대한다	3.1	3.2	5.2	5.6	6.0	11.7	12.1	6.7	7.3	25.7	14.0	12.7	13.4	10.2	9.3	8.7
적극 반대	0.3	0.7	0.1	0.7	0.6	0.4	0.9	0.4	0.5	2.5	0.8	1.7	0.5	0.6	0.7	0.1
반대(소계)	3.4	3.9	5.3	6.3	6.6	12.1	13.0	7.1	7.8	28.1	14.8	14.4	13.9	10.8	10.0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10. 도농 발전격차 완화를 위해 ‘보건의료 시설’과 ‘농업지원 정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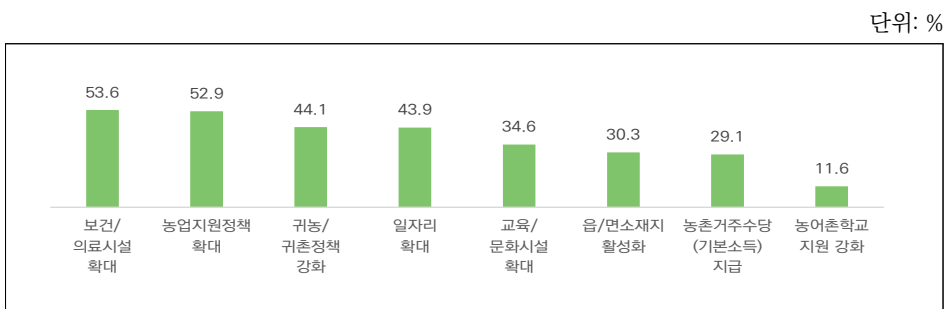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시민은 ‘보건·의료시설 확대’(53.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지원 정책 확대’(52.9%), ‘귀농·귀촌 정책 강화’(44.1%), ‘일자리 확대’(43.9%), ‘교육·

문화시설 확대’(34.6%), ‘읍·면 소재지 활성화’(30.3%), ‘농촌 거주 수당(기본소득) 지급’(29.1%),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11.6%) 등의 순이었음.

○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³⁾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농업인들은 ‘교육·문화시설 확대’(54.2%)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일자리 확대’(47.0%), ‘보건·의료시설 확대’(46.7%), ‘농촌 거주 수당(기본소득) 지급’(42.7%), ‘농업지원정책 확대’(39.4%), ‘읍·면 소재지 활성화’(37.9%), ‘귀농·귀촌 정책 강화’(20.0%),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13.0%) 등의 순으로 응답함. 이는 지역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겠음.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농어촌 삶의 질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김민석, 김태완,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모든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떨어져, 삶의 질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림 2-7〉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박경철. (2021). p.16. 2021 충남도청에 바란다③: 농업인편.

2.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 도시민에게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 및 관련성 인식,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 구체적 시기, 이주 형태, 함께 이주할 가족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여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음.

2.1. 도시민,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와 관련성 작년에 이어 낮은 수준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많은 편이다’와 ‘매우 많다’ 합산)라고 응답한 비율은 30.8%, ‘보통이다’ 36.4%, ‘없다’(‘없는 편이다’와 ‘전혀 없다’ 합산) 32.8%였음.
 -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60대 이상 51.3%),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46.4%),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59.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본인과의 관계가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5%, ‘보통이다’ 38.5%, ‘없다’ 34.0%였음.
 - ‘많다’라고 응답한 도시민은 고연령층(50대 38.3%, 60대 이상 46.1%), 자영업 및 주부(35.1%, 33.0%)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2-8〉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 및 관련성 인식(도시민)

단위: %

문항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우 많다	5.8	6.2	7.7	3.3	3.4	6.0	3.9	5.5	3.7	3.3
많은 편이다	29.2	30.9	36.5	33.0	34.5	36.3	30.3	30.0	26.8	27.5
많다(소계)	35.0	37.1	44.2	36.3	37.9	42.3	34.2	35.6	30.5	30.8
보통	37.1	38.8	33.1	37.5	32.5	37.1	36.8	36.4	36.5	36.4
없는 편이다	25.2	22.0	20.4	22.8	27.4	19.3	26.1	24.5	28.5	29.6
전혀 없다	2.7	2.1	2.3	3.4	2.2	1.3	3.0	3.6	4.5	3.2
없다(소계)	27.9	24.1	22.7	26.2	29.6	20.6	29.1	28.0	32.9	3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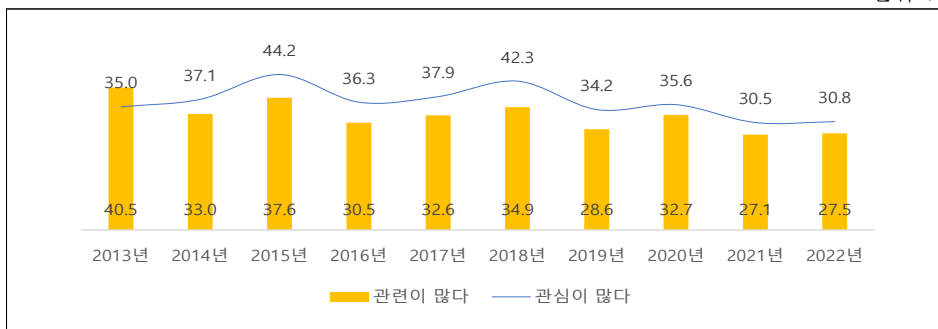
문항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성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우 많다	7.7	4.9	8.8	3.9	4.7	7.0	4.3	4.2	4.8	3.5
많은 편	32.8	28.1	28.8	26.6	27.9	27.9	24.3	28.5	22.3	24.0
많다(소계)	40.5	33.0	37.6	30.5	32.6	34.9	28.6	32.7	27.1	27.5
보통	34.5	37.9	36.3	39.3	34.5	38.6	34.6	36.7	35.7	38.5
없는 편이다	21.9	25.1	22.0	24.3	29.8	24.2	31.2	25.9	30.7	27.5
전혀 없다	3.1	4.1	4.1	5.9	3.0	2.3	5.6	4.7	6.5	6.5
없다(소계)	25.0	29.2	26.1	30.2	32.8	26.5	36.8	30.6	37.2	3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조사 시작 이래 2021년(관심도 30.5%, 관련성 27.1%)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8〉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과 관련이 ‘많다’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2.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있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도시민들은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조금 있다’와 ‘매우 많다’ 합산) 37.2%,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합산) 55.9%로 나타남.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34.4%)보다 2.8%p 높아진 반면,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60.8%) 대비 4.9%p 감소해 전반적인 긍정 의향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0.6%p) 증가한 반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5.4%p 감소하여, 귀농·귀촌 부정 의향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임.

〈표 2-9〉 은퇴 후 귀농·귀촌 연도별 의향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2020	2021	2022
매우 많다	21.7	16.1	19.7	13.2	9.1	20.4	12.5	15.0	8.7	10.5	6.7	18.7	8.5	9.7	10.5	12.6
조금 있다	49.6	47.6	43.1	39.8	38.6	43.3	41.1	28.6	30.3	36.5	34.5	25.4	26.2	31.6	23.9	24.6
있음(소계)	71.3	63.7	62.8	53.0	47.7	63.7	53.6	43.6	39.0	47.0	41.3	44.1	34.6	41.3	34.4	37.2
별로 없다	21.0	23.4	22.7	27.4	34.5	20.9	27.5	32.9	28.7	25.1	29.5	33.7	35.7	37.2	34.7	35.3
전혀 없다	7.7	12.9	14.5	19.7	17.8	15.5	19.0	19.7	25.8	23.4	25.8	20.2	23.6	14.9	26.1	20.7
없음(소계)	28.7	36.3	37.2	47.1	52.3	36.4	46.5	52.6	54.5	48.5	55.3	53.9	59.3	52.1	60.8	55.9
잘 모르겠다	-	-	-	-	-	-	-	3.7	6.5	4.5	3.4	2.0	6.1	6.5	4.7	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 의향자(n=558)들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43.2%로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4.6%), ‘농업을 경영해 안전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53.0%) 대비 9.8%p 감소한 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농업을 경영해 안전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서’는 전년 대비(각각 2.7%p, 2.3%p,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4.6%) 대비 4.4%p 증가하였음.

〈표 2-10〉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

단위: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9	2020	2021	2022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0.6	7.0	8.9	6.6	11.2	5.2	4.3	3.4
농업을 경영해 안전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6.0	7.8	9.7	10.5	3.7	9.0	7.9	10.2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61.0	58.7	50.1	51.4	46.0	43.2	53.0	43.2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서	3.9	3.2	4.1	3.7	2.8	3.0	1.9	4.3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5.0	4.9	3.2	4.5	9.0	7.7	4.6	9.0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7.9	14.6	21.4	20.2	21.4	20.5	21.9	24.6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2.4	3.9	2.4	3.1	5.3	7.5	4.6	4.1
기타	3.2	-	0.2	-	0.6	3.9	1.8	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 의향자(n=558)들은 구체적인 귀농·귀촌 실천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50.9%)라고 응답함. 이어 ‘10년 이후’ 27.1%, ‘10년 내’ 15.1%, ‘5년 내’ 5.4%, ‘3년 내’ 1.6% 등의 순임.

- 특히, 50대 이상일수록 가까운 시일 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였으며, 20대의 경

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3%로 매우 높았음.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57.6%) 대비 6.7%p 감소하였으며, 5년 이내의 단기적인 계획보다 10년 내외의 중장기적인 시기를 선택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년 내’, ‘5년 내’라는 단기적인 계획은 감소한 반면, ‘10년 이후’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전년 대비 약 10.0%p 정도 증가하였음.

〈표 2-11〉 귀농·귀촌 구체적 시기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2020	2021	2022
3년 내	2.4	3.1	1.4	1.4	3.1	1.9	1.2	2.1	1.8	2.9	2.0	1.7	0.8	4.4	1.6
5년 내	3.0	6.1	3.8	5.0	5.3	3.6	5.4	6.7	5.2	4.5	4.4	8.6	3.5	7.2	5.4
10년 내	11.2	9.3	7.2	13.7	8.7	9.3	12.1	12.5	10.9	11.1	11.8	12.2	10.6	13.7	15.1
10년 이후	39.5	30.3	29.4	17.9	23.5	20.5	27.2	17.4	23.3	19.1	23.9	15.4	26.5	17.0	27.1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43.8	51.1	58.2	62.0	59.4	64.6	54.1	61.4	58.7	62.4	57.9	62.1	58.6	57.6	5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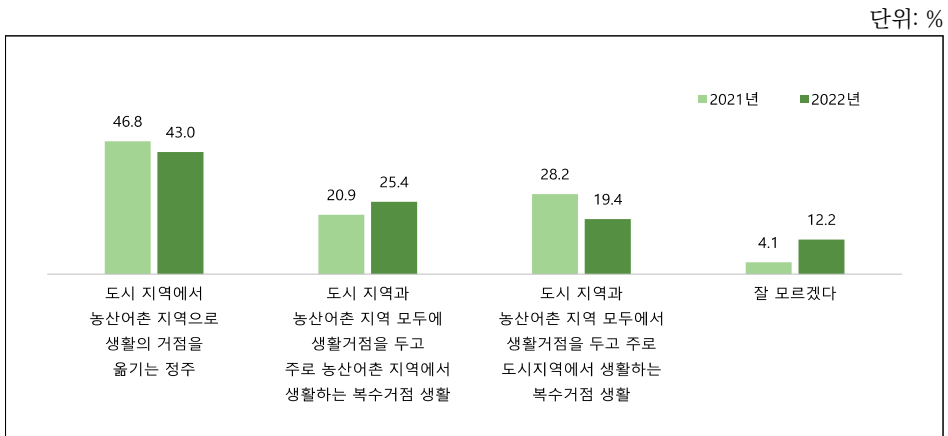
○ 귀농·귀촌 의향자(n=558)가 귀농·귀촌 시 원하는 이주 형태로 ‘도시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인 ‘영구 이주’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46.8%) 대비 3.8%p 감소한 결과임.

○ 다음으로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은 25.4%(2021년 20.9%),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서 생활거점을 두고 주로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은 19.4%(2021년 28.2%)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이 낮을수록(20대 이하) ‘복수거점 생활’을 더 선호하였음.

○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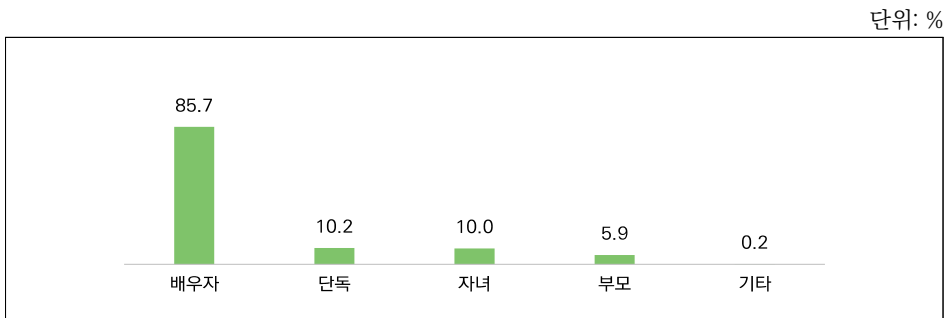
〈그림 2-9〉 귀농·귀촌 시 원하는 이주 형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 의향자(n=558)들은 귀농·귀촌 시 함께 이주할 가족으로 ‘배우자’(85.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단독’(10.2%), ‘자녀’(10.0%), ‘부모’(5.9%)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10〉 귀농·귀촌 시 함께 이주할 가족(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 ‘높다’, 전년 대비 감소

○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이 ‘높다’(‘대체로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 합산)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16.2%, 도시민(비율)은 22.1%였으며, ‘낮다’(‘대체로 낮은 편이다’와 ‘매우 낮다’ 합산)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4.4%, 도시민(비율)은 12.2%로 조사됨.

-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6년 이후 농업인은 50%대를, 도시민은 60%대를 유지해오고 있음.

〈표 2-12〉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 인식

단위: %

구분	농업인								
	2006	2008	2009	2010	2012	2014	2018	2020	2022
매우 낮다	1.3	2.4	1.7	2.2	1.4	2.1	1.5	2.2	2.0
대체로 낮은 편	29.1	22.8	21.2	23.3	20.1	23.7	21.2	18.5	22.4
낮음(소계)	30.4	25.2	22.9	25.5	21.5	25.8	22.7	20.7	24.4
보통이다	56.6	60.2	60.3	58.1	59.3	60.7	59.8	56.6	58.1
대체로 높은 편	8.6	12.5	14.1	11.9	13.8	10.5	15.1	20.5	15.3
매우 높다	0.7	0.6	1.0	0.7	0.6	1.3	1.0	1.2	0.9
높음(소계)	9.3	13.1	15.1	12.6	14.4	11.8	16.1	21.7	16.2
모름/무응답	3.7	1.5	1.8	3.8	4.7	-	-	1.1	1.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도시민								
	2006	2008	2009	2010	2012	2014	2018	2020	2022
매우 낮다	0.9	1.2	0.8	0.6	0.2	1.2	0.4	0.3	0.9
대체로 낮은 편	13.3	9.3	8.5	8.3	16.0	11.3	10.8	9.3	11.3
낮음(소계)	14.2	10.5	9.3	8.9	16.2	12.5	11.2	9.6	12.2
보통이다	70.9	70.2	68.2	64.2	67.3	68.3	63.4	64.3	65.7
대체로 높은 편	14.6	16.7	22.2	26.0	16.0	18.0	24.9	25.6	21.8
매우 높다	0.2	2.6	0.4	0.9	0.5	1.2	0.5	0.4	0.3
높음(소계)	14.8	19.3	22.6	26.9	16.5	19.2	25.4	26.0	22.1
모름/무응답	0.1	0.1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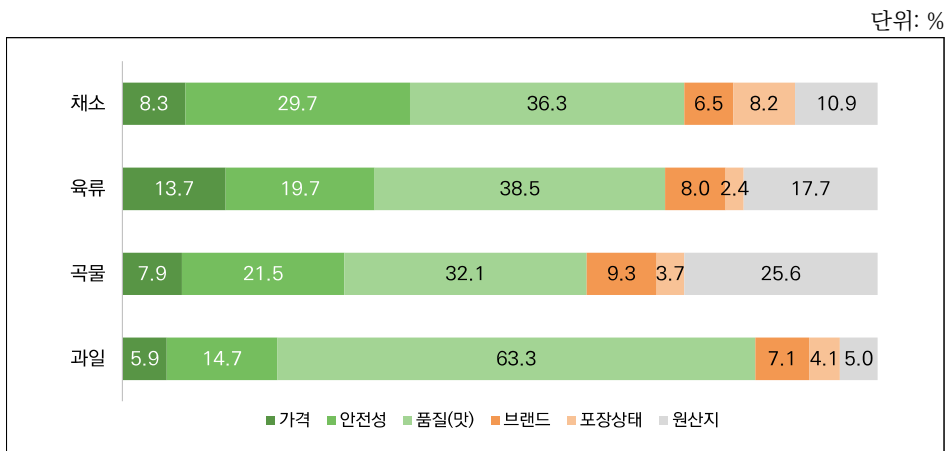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4. 도시민, 농축산물 구입 시 ‘품질(맛)’, ‘안전성’, ‘원산지’ 순으로 고려

○ 도시민은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품질(맛)’(육류 38.5%, 채소 36.3%, 곡물 32.1%)을 가장 많이 꼽았음. 특히, ‘과일’은 과반수(63.3%)의 응답자가 ‘품질(맛)’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안전성’(채소 29.7%, 곡물 21.5%, 육류 19.7%, 과일 14.7%), ‘원산지’(곡물 25.6%, 육류 17.7%, 채소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1〉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2.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 53.5%, ‘보통이다’ 38.9%였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7.6%에 그쳤음.

- ‘개선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농촌 거주 경험자(57.0%),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5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선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57.1%) 대비 3.6%p 감소하였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전년(8.0%) 수준을 유지하였음.

- 특히,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음(38.9%).

〈표 2-13〉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여부(도시민)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9	2020	2021	2022
매우 개선되고 있다	3.7	2.9	1.6	1.7	2.5	2.9	4.3	1.1
개선되고 있는 편	56.9	50.7	51.0	44.1	53.7	61.1	52.8	52.4
개선되고 있음(소계)	60.6	53.6	52.6	45.9	56.2	64.0	57.1	53.5
보통이다	33.9	33.5	36.0	33.9	33.6	29.7	34.9	38.9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	4.9	11.5	10.2	18.5	9.4	6.3	7.5	6.9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0.5	1.3	1.2	1.7	0.8	0.1	0.5	0.7
개선되고 있지 않음(소계)	5.4	12.9	11.4	20.3	10.2	6.3	8.0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6. 도시민,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 우선 고려

○ 농산물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될 경우에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가장 높았음. 이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35.3%),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2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서울 거주자(52.6%), 농사짓는 가족이 없는 경우(40.7%)에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대전/충청 거주자(51.5%),

월평균 생활비 500만 원 이상(37.1%),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경우(36.4%)에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전년(31.0%) 대비 4.3%p 증가하였음.

○ 한편,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와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각각 1.8%p, 2.5%p 감소하여 수입산과 우리 농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이 ‘가격’에서 ‘품질’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14〉 우리 농산물에 대한 연도별 구매 충성도(도시민)

단위: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45.1	34.1	29.5	32.8	32.7	21.2	28.6	26.8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8.3	28.5	35.1	28.7	37.9	36.8	40.4	37.9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26.7	37.3	35.4	38.5	29.3	42.1	31.0	3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7.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심각’, 도시민과 농업인 10년 전 대비 증가

○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농업인(84.0%)과 도시민(75.7%) 모두 과반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빈부격차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8.3%p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농업인(2013년 75.5%, 2019년 81.2%, 2022년 84.0%)과 도시민(2013년 70.5%, 2019년 75.4%, 2022년 75.7%) 모두 증가하였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의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격차도 점차 증가(5.0%p, 5.8%p, 8.3%p)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자리’ 다음으로 ‘빈부격차’를 꼽아 우리나라 빈부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5〉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3	2019	2022	2013	2019	2022
전혀 심각하지 않다	-	0.7	0.5	0.3	0.2	0.5
별로 심각하지 않다	8.2	4.2	4.2	5.6	2.9	2.7
심각하지 않음(소계)	8.2	4.9	4.6	5.9	3.1	3.2
보통이다	11.4	13.2	10.8	23.5	21.5	21.1
약간 심각하다	36.2	45.0	43.5	42.8	53.6	50.7
매우 심각하다	39.3	36.2	40.5	27.7	21.7	25.0
심각함(소계)	75.5	81.2	84.0	70.5	75.4	75.7
모름/무응답	4.9	0.7	0.6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8.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 ‘좋다’, 농업인 2.7%에 그쳐

○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76.1%,

4)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조사는 지난 1996년 시작되어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의 만 19~79세 성인남녀 5,100명이며, 조사 방법은 가구 방문 면접조사임.

도시민(비율)은 35.3%로 도시민 대비 농업인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또한,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7%에 그친 반면, 도시민(비율)은 20.7%로 나타나 농업인 대비 도시민이 약 8배 정도 높았음.

○ '안 좋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019년 69.8%에서 2022년 76.1%로 6.3%p 증가한 반면, 도시민(비율)은 2019년 39.5%에서 2022년 35.3%로 4.2%p 감소하였음.

- 또한, '안 좋다'라고 응답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응답 비율 격차는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음.

〈표 2-16〉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3	2019	2022	2013	2019	2022
매우 안 좋다	17.0	12.8	15.2	4.5	2.8	3.7
안 좋은 편이다	53.3	57.1	60.9	36.5	36.7	31.6
안 좋음(소계)	70.3	69.8	76.1	41.0	39.5	35.3
보통이다	22.6	24.8	20.6	45.5	42.5	43.9
좋은 편이다	4.5	4.7	2.5	13.3	18.0	20.1
매우 좋다	0.2	0.1	0.2	0.2	0.1	0.6
 좋음(소계)	4.7	4.7	2.7	13.5	18.0	20.7
모름/무응답	2.4	0.7	0.6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 농업경영 및 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 변화,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농업경영 위험 요소 등을 조사하였음.

- 현재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 분야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정도, 지난 1년간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에 어려움 정도,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을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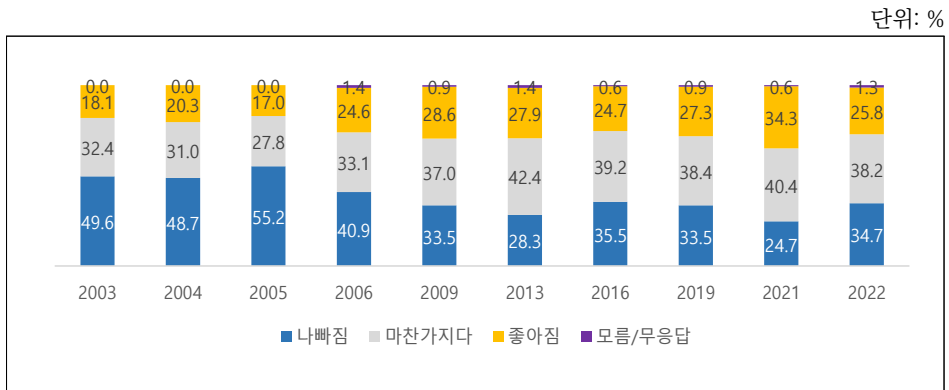
- 또한,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빈도, 농업에서 은퇴하고 싶은 이유와 은퇴하고 싶지 않은 이유, 농업 은퇴 시 농지 처리 방법,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 및 후계자와의 관계, 의향이 없는 이유,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계획 등을 질문하였음.

3.1. 농업인, 5년 전보다 농촌 생활이 ‘좋아졌다’ 전년보다 감소

○ 5년 전과 비교해 올해의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5.8%, ‘나빠졌다’ 34.7%였음. 5년 전과 ‘마찬가지’는 38.2%로 나타남.

○ 5년 전 대비 올해의 농촌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24.7%) 대비 10.0%p 높아지고, ‘좋아졌다’는 8.5%p 감소하였음.

〈그림 2-12〉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농촌 생활 수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2. 올해 농촌 생활 분야별 만족도 모두 증가, 전반적 만족도는 감소

○ 현재 농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3.1%였으며, ‘불만족한다’는 14.7%로 조사되었음.

○ ‘주거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분야에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1%와 45.0%인 반면, ‘교육환경’, ‘대중교통’, ‘쓰레기 및 환경 관리’, ‘보건의료’, ‘문화체육여가’, ‘소득원 및 일자리’ 분야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20%대 수준인 것으로 보아 농촌 생활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7〉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점

항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불만족 (소계)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소계)	모름/무응답	5점 평균(점)
주거환경	2.5	10.1	12.6	44.5	36.7	4.4	41.1	1.8	3.31
교육환경	8.1	26.9	35.0	42.1	18.5	1.6	20.0	2.9	2.78

(계속)

항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불만족 (소계)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소계)	모름/ 무응답	5점 평균(점)
대중교통	10.0	26.7	36.7	37.9	19.7	3.7	23.4	1.9	2.80
쓰레기 및 환경 관리	8.1	25.0	33.1	35.6	26.1	3.2	29.2	2.0	2.91
보건의료	10.2	25.8	36.0	35.5	23.4	3.2	26.6	1.9	2.83
문화체육여가	9.9	32.6	42.5	38.6	14.7	2.1	16.8	2.1	2.66
소득원 및 일자리	9.6	37.0	46.7	37.5	12.0	1.4	13.4	2.5	2.57
이웃과의 관계	1.8	8.8	10.6	41.1	38.7	6.3	45.0	3.3	3.40
전반적인 만족도	1.6	13.2	14.7	46.6	21.3	1.8	23.1	15.6	3.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조사 시작 이래 올해(23.1%) 가장 낮아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웃과의 관계’와 ‘쓰레기 및 환경 관리’, ‘소득원 및 일자리’의 만족도 응답비율은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올해 가장 높은(각각 45.0%, 29.2%, 13.4%) 만족도를 보였지만, 50% 미만으로 여전히 낮았음.

〈표 2-18〉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한 분야별 ‘만족한다’

단위: %

구분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2
주거환경	45.6	30.4	35.7	45.7	45.8	40.3	41.1
이웃과의 관계	20.9	27.9	25.1	41.9	35.3	38.3	45.0
보건의료	29.0	23.9	22.5	29.4	33.5	19.9	26.6
대중교통	34.0	25.2	25.0	29.0	30.2	18.3	23.4
문화 체육 여가	16.9	12.9	12.5	18.6	25.7	13.8	16.8
교육환경	20.3	13.2	15.9	17.8	21.1	15.4	20.0
쓰레기 및 환경 관리	26.1	25.5	25.9	27.1	25.6	18.6	29.2
소득원 및 일자리	5.4	6.0	7.5	8.0	10.4	10.0	13.4
전반적인 만족도	32.4	31.3	37.4	40.7	42.7	27.9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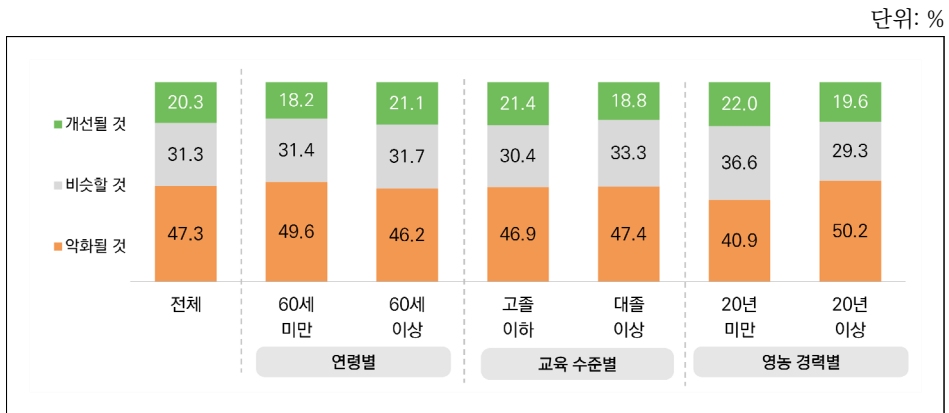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3. 올해 대비 5년 후 농촌 생활 수준 전망 ‘부정적’

○ 올해와 비교해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3%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할 것이다’ 31.3%, ‘개선될 것이다’ 20.3%로 응답하였음.

-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21.1%)에서, 영농경력이 20년 미만(22.0%)인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13〉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 변화 예상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25.3%) 대비 5.0%p 감소하였으며, ‘악화될 것이다’는 2007년(42.7%) 이후 가장 높게(47.3%) 나타남. 또한,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46.8%)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5년 후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높았음.

- ‘개선될 것이다’와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격차는 2013년 이후 점차 증가(2013년 8.7%p, 2016년 16.1%p, 2022년 27.0%p)하고 있음.

〈표 2-19〉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 변화(연도별)

단위: %

구분	2006	2007	2011	2012	2013	2016	2022
개선될 것이다	13.4	23.1	14.5	11.7	25.2	25.3	20.3
비슷할 것이다	28.7	33.6	43.2	46.8	38.9	32.2	31.3
악화될 것이다	56.8	42.7	40.3	38.4	33.9	41.4	47.3
모름/무응답	1.1	0.6	2.0	3.0	2.0	1.1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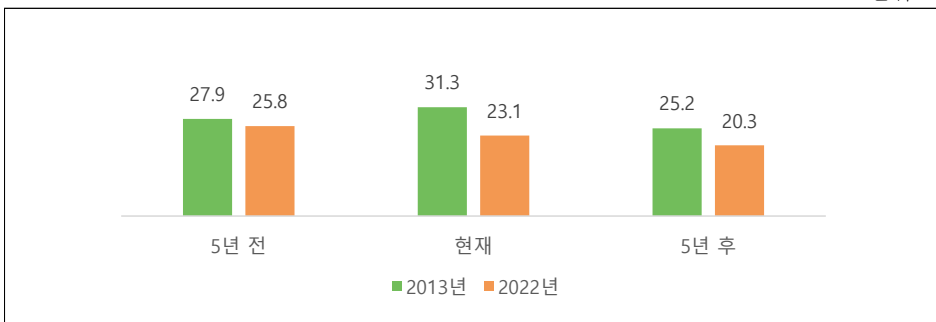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4. 5년 전-현재-5년 후 농촌 생활 수준 만족도 2013년 대비 모두 감소

- 현재 농촌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22년 23.1%로 8.2%p 감소하였음.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7.9%에서 2022년 25.8%로 2.1%p, 올해 대비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2013년 25.2%에서 2022년 20.3%로 4.9%p 감소하였음.

〈그림 2-14〉 5년 전-현재-5년 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만족도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5. 올해 농사 만족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3.7%, ‘불만족이다’ 48.9%로 올해 농사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타작물(36.6%)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작(28.3%), 노지채소(27.9%), 시설원예(2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이후 2~3%대로 정체이며, ‘약간 만족한다’는 전년(33.0%) 대비 11.8%p 크게 감소하였음.

-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26.9%를 기록하였음.

〈표 2-20〉 연도별 올해 농사 만족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우 만족	5.3	1.6	2.1	3.2	6.4	5.3	7.9	2.4	3.3	3.1	2.8	2.6	2.9	2.6
약간 만족	23.8	12.7	22.9	20.1	26.6	28.0	27.3	17.4	21.6	26.9	19.5	16.7	33.0	21.2
만족(소계)	29.1	14.3	25.0	23.3	33.0	33.3	35.2	19.8	24.9	30.0	22.2	19.3	35.9	23.7
그저 그렇다	27.3	31.0	33.3	40.2	32.2	31.1	28.5	28.6	34.7	38.4	31.1	28.7	29.9	26.9
약간 불만족	28.6	30.0	27.9	22.2	23.5	23.9	22.7	29.1	27.0	25.3	30.4	31.8	24.8	33.7
매우 불만족	14.6	24.3	12.9	14.2	10.7	11.1	12.5	21.7	12.1	5.6	16.0	19.4	9.2	15.2
불만족(소계)	43.2	54.3	40.8	36.4	34.2	35.0	35.2	50.7	39.1	30.9	46.4	51.2	34.0	48.9
무응답	0.4	0.4	0.9	0.2	0.5	0.7	1.1	0.8	1.3	0.7	0.3	0.8	0.2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올해 농사에 불만족한 응답자(n=527)는 그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 여건이 나빠졌다’(6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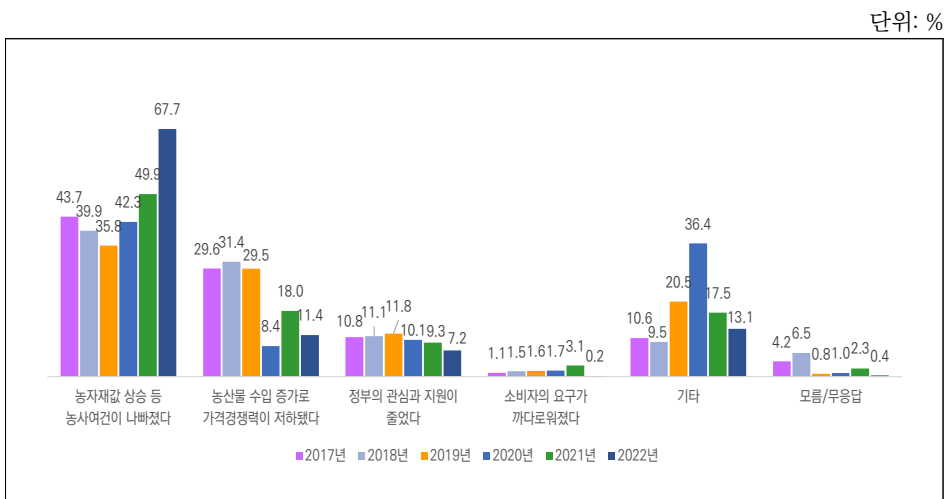
격 경쟁력이 저하됐다'(11.4%),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 '젓은 비'(5.5%), '병해충'(1.9%), '생산량 감소'(1.3%) 등이 제시됨.

○ 특히,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 여건이 나빠졌다'(67.7%)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35.8%)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전년(49.9%) 대비 17.8%p로 크게 높아졌음.

- 또한, '기타'라는 응답은 2020년 36.4%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조사 결과(13.1%) 대비 23.3%p로 크게 낮아졌음 (2020년 '기타' 의견으로 '기후변화, 자연재해', '수확량 감소', '장마 및 태풍' 등임).

〈그림 2-15〉 연도별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6. 농업인, ‘소득’보다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다소 높음’과 ‘매우 높음’ 합산)으로 응답한 비율은 25.3%, ‘낮음’(‘다소 낮음’과 ‘매우 낮음’ 합산) 22.2%, ‘보통이다’ 48.3%였음.
- 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다소 높음’과 ‘매우 높음’ 합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3%, ‘낮음’(‘다소 낮음’과 ‘매우 낮음’ 합산) 18.3%였음.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을 유보한 농업인도 45.1%였음.
-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다소 높음’과 ‘매우 높음’ 합산)이라는 응답 비율은 12.8%, ‘낮음’(‘다소 낮음’과 ‘매우 낮음’ 합산)은 47.3%, 농업소득에 만족도가 ‘높다’라는 응답 비율보다 ‘낮다’라는 응답 비율은 약 4배(34.5%p) 정도 높게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2022)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수/급여’(32.7%)가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추후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소득’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임.

〈표 2-21〉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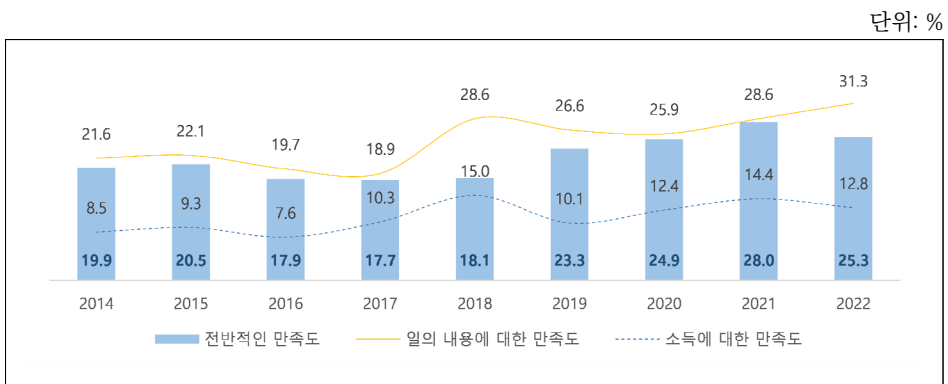
항목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낮음 (소계)	보통 이다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높음 (소계)	모름/ 무응답
전반적 만족도	1.9	20.3	22.2	48.3	23.4	1.9	25.3	4.2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1.6	16.7	18.3	45.1	28.8	2.5	31.3	5.4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7.6	39.7	47.3	34.6	11.4	1.4	12.8	5.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해오다 2022년 소폭 (2.7%p) 감소해 여전히 농업을 직업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은 응답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과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매년 15.0%p대를 유지해오다 올해 18.5%p로 증가하였음.

〈그림 2-16〉 연도별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주: ‘일의 내용’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조사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0 한국의 직업 정보’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직자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56점, 농림어업직 재직자는 3.36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3.03점으로 나타남.⁵⁾

⁵⁾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의 직업 정보’(최기성, 이은수, 2021)의 ‘농림어업직 재직자’는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육묘 및 화훼작물재배자, 조경원, 낙농 조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22〉 농업인과 전체 산업 재직자의 직업 만족도 비교

단위: %, 점

항목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편	보통 이다	대체로 높은 편	매우 높음	모름/무응답	5점 평균 (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년)	1.9	20.3	48.3	23.4	1.9	4.2	3.03
한국고용정보원 농림어업직 재직자	-	8.3	49.3	40.4	2.0	-	3.36
한국고용정보원 전체 산업 재직자	0.2	4.1	40.4	49.9	5.5	-	3.56

주: '재직자'는 해당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임.

자료: 최기성, 이은수(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n=577)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이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2.7%)를 꼽았음. 다음으로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6.5%),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3.2%),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0.1%) 등의 순이었음.

-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미만(70.2%), 대졸 이상(63.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19.8%), 고졸 이하(2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부터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증가하였음. 또한,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조사 시작 이래로 올해 가장 높은 응답률(16.5%)을 보였음.

- 그 외에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표 2-23〉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단위: %

구분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32.9	46.7	51.5	49.0	59.3	60.4	53.7	51.5	50.1	50.4	52.7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0.2	21.6	25.1	31.5	18.7	16.8	15.5	14.4	7.8	11.6	10.1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6.3	14.4	9.5	10.0	10.0	11.5	14.0	12.2	12.3	9.6	16.5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11.5	10.8	7.3	5.7	8.0	9.3	12.0	14.2	20.4	18.5	13.2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2.4	0.6	1.0	1.7	1.8	1.6	4.8	2.2	1.5	1.1	1.7
기타(무응답 포함)	6.8	6.0	5.6	2.0	2.2	0.3	-	5.5	7.9	8.9	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7.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 최근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인들은 ‘농업 생산비 증가’(23.5%)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일손 부족’(16.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11.5%),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7.5%), ‘판로 확보 어려움’(6.7%),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업 생산비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19.1%) 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FTA 등 개방 확대’, ‘농가 부채 증가’, ‘영농자금 압박’ 등의 응답도 소폭 증가하였음.

- 반면, ‘일손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후계인력 부재’, ‘농업정책 오류’, ‘조수 피해’ 등은 전년보다 낮아졌음.

- ‘판로 확보 어려움’, ‘농지 부족’,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질병’,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표 2-24〉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중복응답, 100% 환산)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FTA 등 개방 확대	16.2	17.6	17.6	12.2	14.6	4.4	10.7	6.1	4.2	5.1
농업 생산비 증가	16.1	14.8	14.2	13.8	14.0	16.6	15.6	20.2	19.1	23.5
영농자금 압박	1.7	1.7	1.8	2.0	1.7	1.7	2.8	2.1	2.0	2.3
농업정책 오류	5.7	6.2	5.4	5.2	6.1	5.4	5.5	3.3	5.8	4.5
일손 부족	16.7	13.5	14.1	15.0	16.6	17.0	15.3	18.9	19.4	16.8
판로 확보 어려움	5.1	8.0	9.6	10.1	7.7	7.3	9.7	7.2	6.8	6.7
농지 부족	0.6	0.5	0.3	0.6	0.6	1.2	1.0	1.2	1.4	1.2
농가 부채 증가	5.7	6.0	4.1	4.2	4.0	5.0	4.4	3.1	3.1	3.9
후계인력 부재	6.6	5.1	5.3	4.8	6.4	7.7	3.8	2.2	5.2	3.7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질병	0.6	0.8	0.8	0.6	1.2	1.3	0.7	1.0	0.4	0.6
태풍, 장마 피해	2.5	1.9	3.0	4.3	3.6	7.7	5.6	13.2	4.5	4.0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5.1	5.6	5.5	4.9	4.7	4.8	4.7	1.4	4.2	5.8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7.3	12.2	10.6	8.4	8.7	7.5	8.0	3.0	7.5	7.5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7.7	3.5	5.8	9.5	6.9	7.9	9.6	15.1	13.5	11.5
조수 피해	1.4	1.6	1.5	2.2	2.2	3.3	2.1	0.7	2.1	1.5
기타(무응답 포함)	1.1	0.9	0.6	2.3	1.0	1.2	0.7	1.2	0.9	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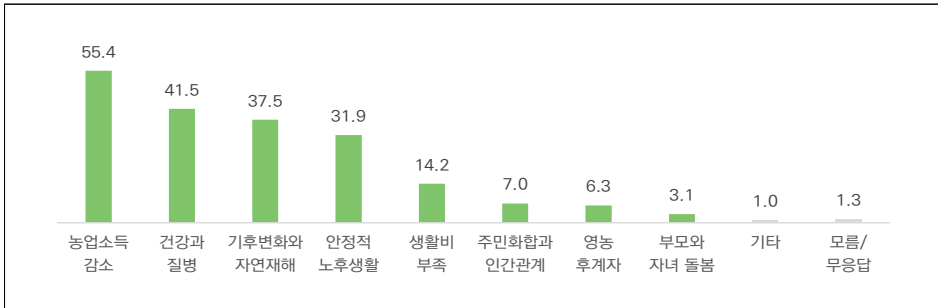
3.8. 농업인으로서 가장 큰 고민, ‘농업소득 감소’와 ‘건강과 질병’

○ 현재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으로 ‘농업소득 감소’(55.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건강과 질병’(41.5%), ‘기후변화와 자연재해’(37.5%), ‘안정적 노후생활’(31.9%), ‘생활비 부족’(14.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 같은 결과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의료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가뭄과 홍수, 그리고 냉해 피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농가의 고민과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17〉 현재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중복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3.9. 농촌지역 시설 이용, ‘전문인력과 서비스(프로그램) 부족’으로 불편

○ 농촌지역 분야별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부족함’(47.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취미·문화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부족함’(각각 40.4%, 30.8%, 39.6%, 31.6%)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함’(31.7%), ‘복지 서비스’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수준이 낮음’(27.3%), ‘교육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부족함’(28.7%), ‘취미·문화 서비스’는 ‘너무 멀리 있음’(31.1%), ‘일자리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부족함’(27.6%)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5〉 분야별 시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중복응답)

단위: %

구분	너무 멀리 있음	교통이 불편함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수준이 낮음	전문 인력이 부족함	시설이 낙후함	이용 가격이 비쌌	온라인 서비스가 부족함	기타	모름/무응답
보건의료 서비스	31.4	31.7	20.6	18.2	47.5	16.4	7.1	8.3	3.2	11.3
복지 서비스	20.7	22.8	40.4	27.3	26.9	12.1	3.2	10.8	4.8	14.4
교육 서비스	23.7	27.6	30.8	22.5	28.7	8.6	3.7	10.8	6.2	19.6
취마문화 서비스	31.1	25.1	39.6	21.8	21.2	12.2	6.0	8.9	4.3	15.2
일자리 서비스	19.5	22.8	31.6	17.1	27.6	4.2	9.8	15.1	10.1	2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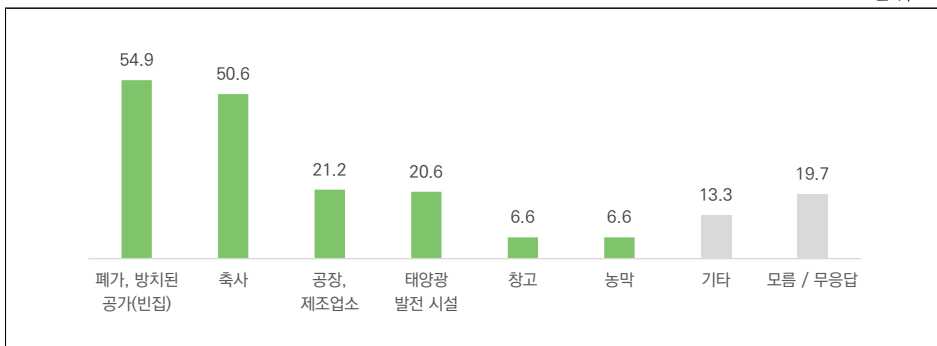
3.10.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 문제로 ‘폐가’, ‘공사(빈집)’, ‘축사’ 꼽아

○ 마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폐가, 방치된 공사(빈집)’이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사’(50.6%), ‘공장, 제조업소’(21.2%), ‘태양광 발전 시설’(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쓰레기 소각 및 투기’(1.9%), ‘농약, 비닐 등 농자재 처리’(0.6%), ‘교통 불편 및 관광객 차량’(0.5%) 등이 있었음.

〈그림 2-18〉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복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3.11. 마을주민과 관계 ‘원만’ 70.5%, 소속감과 자긍심 ‘느껴진다’ 51.8%

○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원만한 편이다’와 ‘매우 원만하다’ 합산)라는 농업인은 10명 중 7명인 70.5%로 나타남. 한편, ‘원만하지 않다’(‘원만하지 않은 편이다’와 ‘매우 원만하지 않다’ 합산)는 6.5%에 그쳤음.

- ‘원만하다’라는 응답은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26〉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

단위: %

항목		매우 원만하지 않다	원만하지 않은 편이다	원만하지 않음 (소계)	그저 그렇다	원만한 편이다	매우 원만하다	원만함 (소계)	모름/무응답
전체		2.0	4.5	6.5	21.8	58.4	12.1	70.5	1.1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2.7	4.9	7.7	25.7	54.6	10.4	64.9	1.7
	2천만 원 이상	1.1	4.0	5.1	17.5	63.1	13.6	76.7	0.7
	무응답	4.1	5.7	9.8	28.5	50.4	10.6	61.0	0.8
전체농가 소득	2천만 원 미만	2.8	6.4	9.2	25.4	53.4	10.2	63.6	1.8
	2천만 원 이상	1.3	3.6	4.9	19.0	62.2	13.0	75.2	0.9
	무응답	4.0	5.6	9.5	28.6	50.0	11.1	61.1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지에 대해 농업인 51.8%는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합산)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5.3%,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합산) 11.6%로 나타남.

- ‘그렇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영농경력 20년 이상,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7〉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정도

단위: %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음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모름/ 무응답
전체		1.7	9.9	11.6	35.3	38.2	13.6	51.8	1.3
영농 경력	20년 미만	1.5	12.5	14.0	42.7	35.1	8.2	43.3	0.0
	20년 이상	1.8	8.0	9.8	31.2	40.2	16.7	56.9	2.1
	무응답	1.6	12.5	14.1	35.9	36.7	12.5	49.2	0.8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1.2	12.8	14.1	38.8	35.8	9.6	45.4	1.7
	2천만 원 이상	2.0	6.9	8.9	32.5	40.2	17.1	57.3	1.3
	무응답	1.6	13.8	15.4	35.8	37.4	11.4	48.8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70.3%에서 2022년 7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라는 응답비율은 2013년(54.8%) 대비 2.9%p 감소하였음.

- 거주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와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라는 응답 비율은 2019년 이후 각각 70%대와 50%대를 유지해 오고 있음.

〈표 2-28〉 마을주민과의 관계 및 거주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여부

단위: %

구분	2013	2016	2019	2022
거주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70.3	80.6	70.1	70.5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54.8	62.4	53.8	5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12. 농업인 10명 중 7명, 지난 1년간 인력 고용 ‘어려웠다’

○ 농업인 10명 중 7명(73.1%)은 지난 1년간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이 ‘어려웠다’(‘약간 어려웠음’과 ‘매우 어려웠음’ 합산)라고 응답하였으며, ‘어렵지 않았다’(‘별로 어렵지 않았음’과 ‘전혀 어렵지 않았음’ 합산)는 7.9%에 그쳤음.

- ‘어려웠다’라는 응답 비율은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78.5%), 전체 농가 소득 2천만 원 이상(78.6%)인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29〉 지난 1년간 영농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에 어려움 정도

단위: %

항목	매우 어려웠음	약간 어려웠음	어려웠음 (소계)	보통	별로 어렵지 않았음	전혀 어렵지 않았음	어렵지 않았음 (소계)	모름/무응답	t/F
전체	29.9	43.2	73.1	17.7	7.3	0.6	7.9	1.2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21.2	44.7	65.9	23.5	7.9	0.7	8.6	2.0
	2천만 원 이상	36.5	42.0	78.5	13.8	6.5	0.5	7.1	0.5
	무응답	28.5	43.9	72.4	16.3	8.9	0.8	9.8	1.6
전체농가 소득	2천만 원 미만	21.2	38.9	60.1	27.2	9.5	1.1	10.6	2.1
	2천만 원 이상	33.6	45.0	78.6	14.1	6.0	0.4	6.4	0.9
	무응답	29.4	43.7	73.0	15.9	9.5	0.8	10.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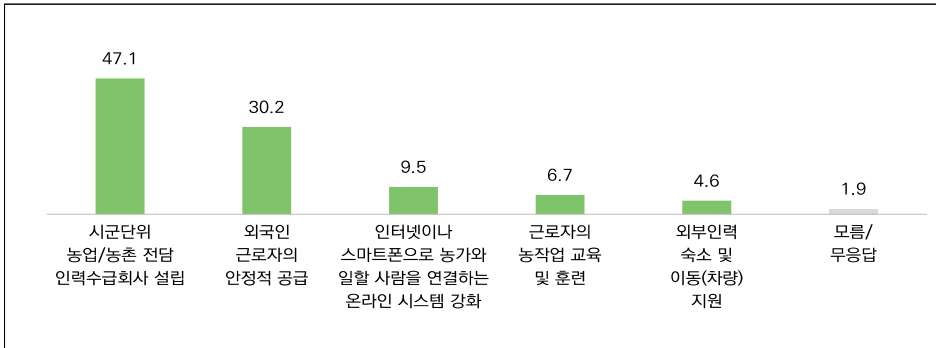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업인들은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군 단위 농업·농촌 전담 인력수급회사 설립’(47.1%)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30.2%),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농가와 일할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 강화’(9.5%), ‘근로자의 농작업 교육 및 훈련’(6.7%), ‘외부인력 숙소 및 이동(차량) 지원’(4.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19〉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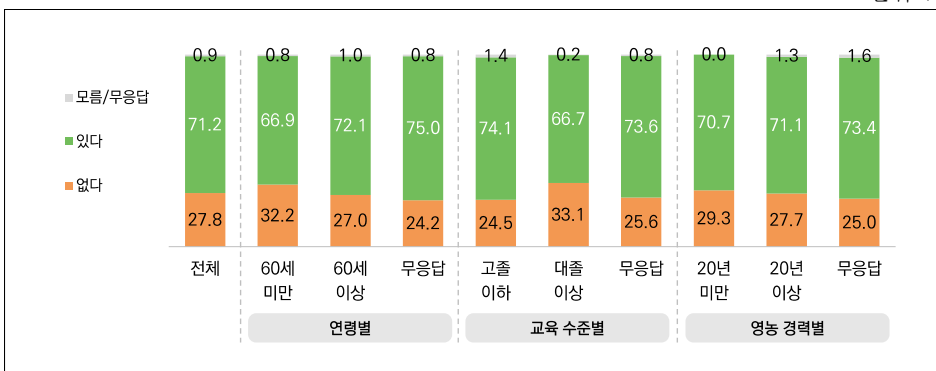
3.13. 농업인 10명 중 7명,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71.2%로 과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27.8%였음.

-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그림 2-20〉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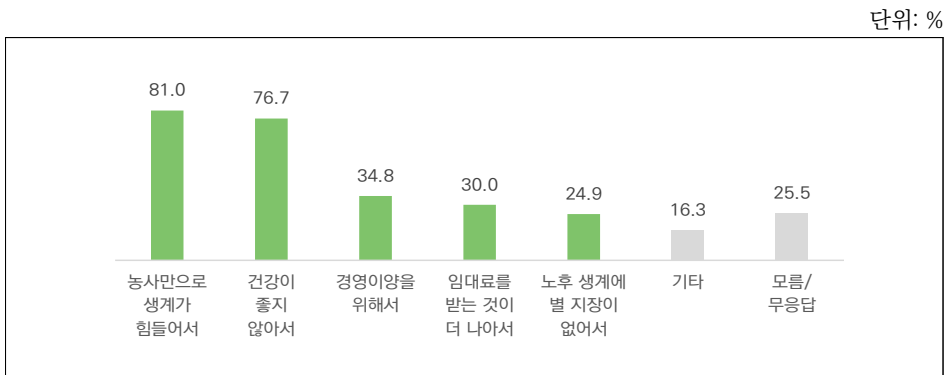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n=768)는 그 이유로 ‘농사만으로 생계가 힘들어서’(81.0%)와 ‘건강이 좋지 않아서’(76.7%)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경영 이양을 위해서’(34.8%), ‘임대료를 받는 것이 더 나아서’(30.0%), ‘노후 생계에 별 지장이 없어서’(24.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농사만으로 생계가 힘들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60세 미만, 영농경력 20년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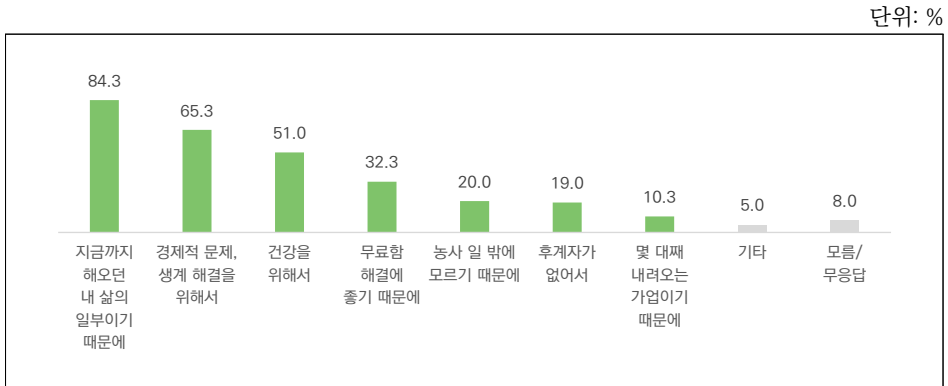
〈그림 2-21〉 농업을 은퇴하고 싶은 이유(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농업인(n=300)은 그 이유로 ‘지금까지 해오던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84.3%)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경제적 문제, 생계 해결을 위해서’(65.3%), ‘건강을 위해서’(51.0%), ‘무료함 해결에 좋기 때문에’(32.3%),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20.0%), ‘후계자가 없어서’(19.0%) 등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22〉 농업을 은퇴하고 싶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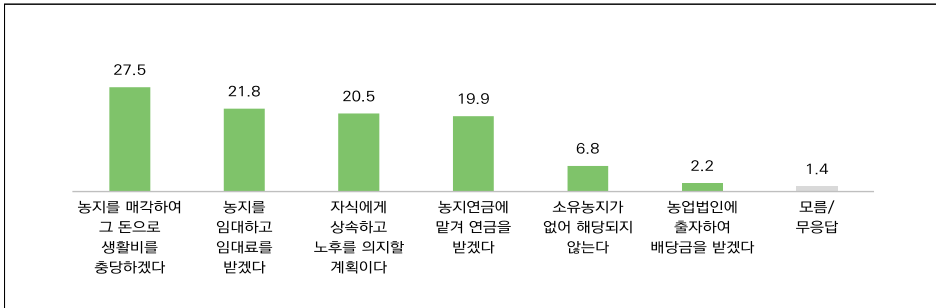
3.14. 농업 은퇴 시 ‘농지는 매각하여 생활비 충당’ 27.5%

○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경우 농지 처리 방법에 대해 ‘농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5%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겠다’(21.8%), ‘자식에게 상속하고 노후를 의지할 계획이다’(20.5%), ‘농지연금에 맡겨 연금을 받겠다’(19.9%) 등으로 응답하였음.

- ‘농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농경력 20년 미만(34.5%), 과수(36.7%) 농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겠다’라는 응답 비율은 영농경력 20년 이상(24.8%), 수도작(33.6%) 농가에서 높았음.

〈그림 2-23〉 농업 은퇴 시 농지 처리 방법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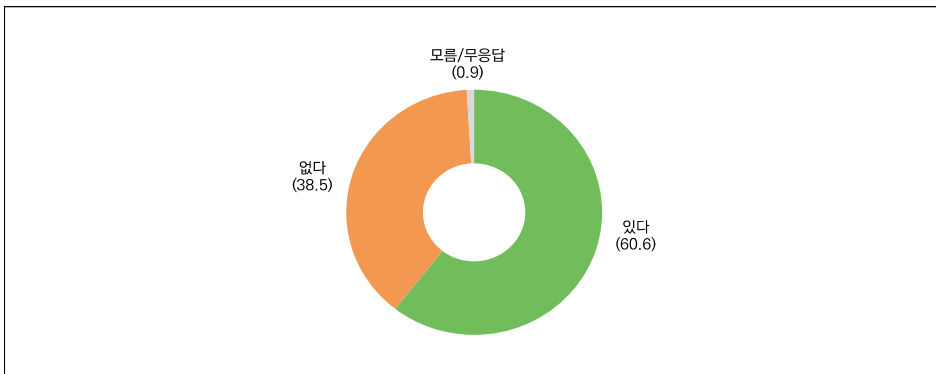
3.15. 농업인 10명 중 6명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있다'

○ 향후 자식, 친척 또는 주변인 등에게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10명 중 6명(60.6%)이었으며, 의향이 '없다' 38.5%로 나타남.

-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영농경력 20년 이상,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이상인 농가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24〉 향후 자식, 친척 또는 주변인 등에게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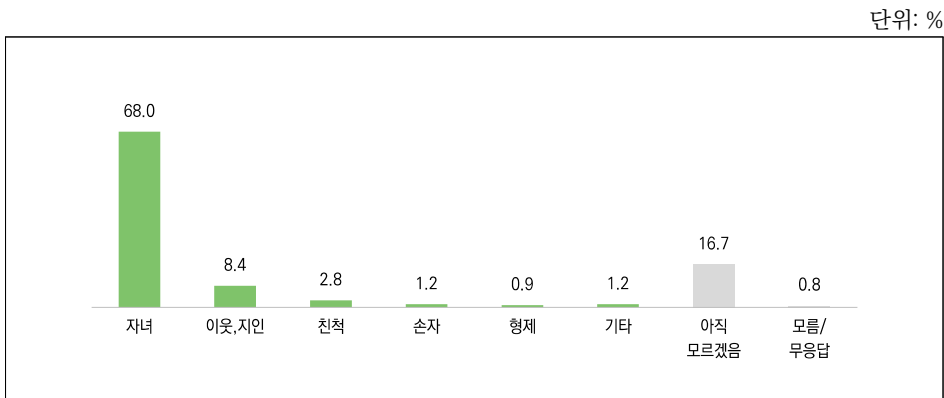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653)는 영농기반을 물려줄 후계자로 10명 중 7명이 ‘자녀’(68.0%)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 ‘이웃이나 지인, 친척, 손자, 형제’ 13.3%, ‘아직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도 16.7%로 나타남.

〈그림 2-25〉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후계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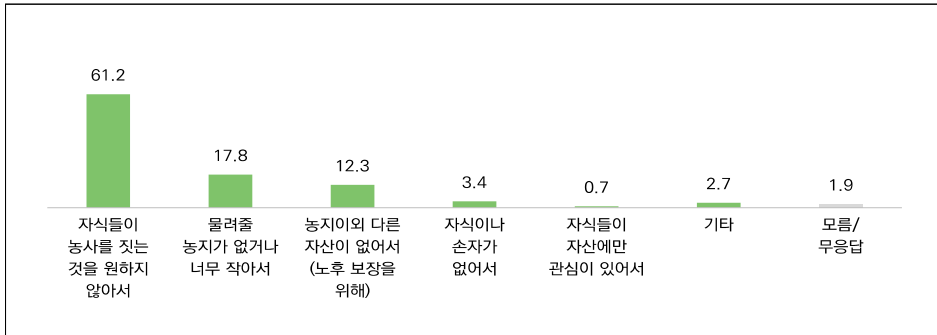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영농기반을 물려 줄 의향이 없는 응답자(n=415)는 그 이유로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61.2%)를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물려줄 농지가 없거나 너무 작아서’(17.8%), ‘농지 이외 다른 자산이 없어서(노후 보장을 위해)’(1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물려줄 농지가 없거나 너무 작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미만 농가에서 높았음.

〈그림 2-26〉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3.16. 농업인 10명 중 8명,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농업 종사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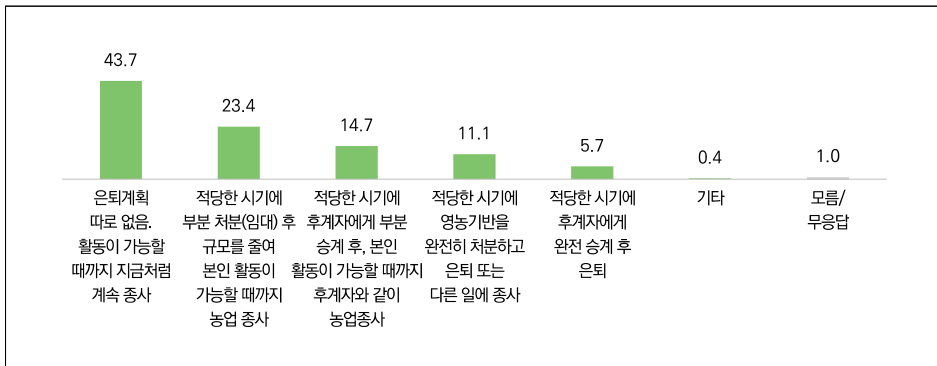
○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계획에 대해 농업인 43.7%는 ‘은퇴계획이 따로 없으며,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종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어 ‘적당한 시기에 부분 처분(임대) 후 규모를 줄여 본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농업 종사’(23.4%), ‘적당한 시기에 후계자에게 부분 승계 후 본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후계자와 같이 농업 종사’(14.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농업인 80%는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계획이 따로 없음.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계속 종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농경력 20년 이상, 수도작, 전체 농가소득 2천만 원 미만에서, ‘적당한 시기에 부분 처분 후 규모를 줄여 본인이 가능할 때까지 종사’라는 응답 비율은 특작 및 노지채소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27〉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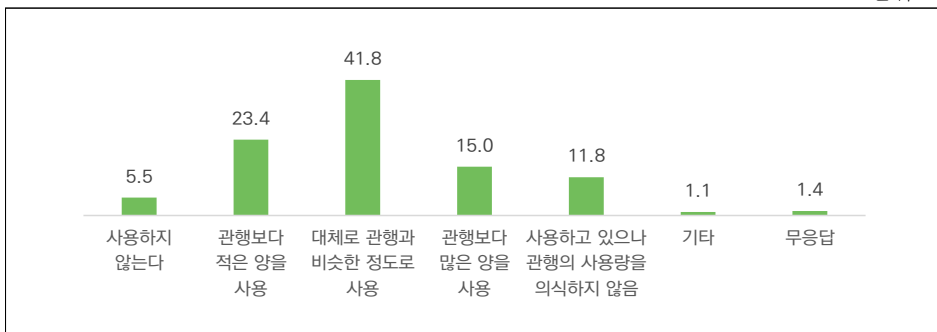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3.17. 관행 퇴비 사용량보다 ‘대체로 비슷한 정도를 사용한다’ 41.8%

○ 관행 퇴비 사용량과 비교해 ‘대체로 관행과 비슷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8%였으며, ‘관행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23.4%, ‘관행보다 많은 양을 사용한다’ 15.0%, ‘사용하고 있으나 관행 사용량을 의식하지 않는다’ 1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한편, ‘사용하지 않는다’는 5.5%에 그쳤음.

〈그림 2-28〉 관행 퇴비 사용량 대비 농업인 개인의 퇴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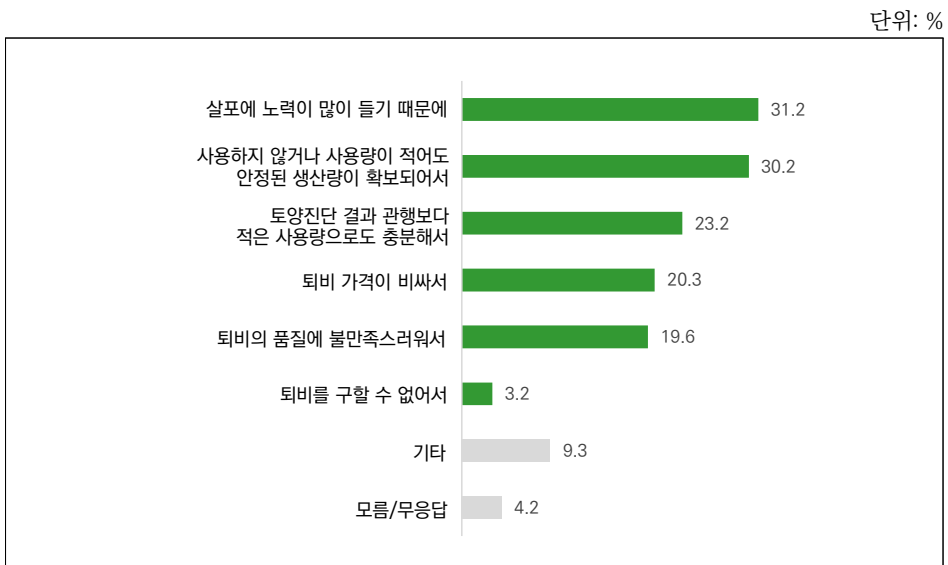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퇴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관행보다 적은 양을 사용한다는 응답자(n=311)는 그 이유로 ‘살포에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31.2%)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이 적어도 안정된 생산량이 확보되어서’(30.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토양진단 결과 관행보다 적은 사용량으로도 충분해서’(23.2%), ‘퇴비 가격이 비싸서’(20.3%), ‘퇴비의 품질에 불만족스러워서’(19.6%) 등의 순이었음.

〈그림 2-29〉 퇴비를 관행보다 적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등을 조사하였음.

-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 고려 시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정도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용어 인지 여부, 10년 전·후 대비 현재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분의 역할 수준 등을 물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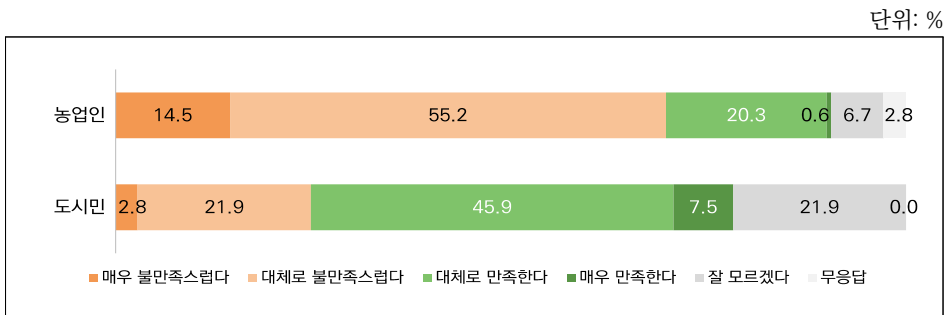
○ 도시민에게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심각성, 식품 소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인의 실천 방법,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도, 로컬푸드 이용에 따른 인식 변화,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시 불편한 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의 중요한 책임, 유기농 식품 관련 진술 동의 여부 등을 조사하였음.

4.1. 현 정부 농정 전반 ‘만족한다’ 농업인 20.9%, 도시민 53.4%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 합산)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0.9%, 도시민(비율)은 53.4%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6.7%, 도시민(비율)은 21.9%이었음.

- ‘불만족스럽다’(‘대체로 불만족스럽다’와 ‘매우 불만족스럽다’ 합산)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69.7%, 도시민(비율)은 24.7%로 나타나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남.

〈그림 2-30〉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2. 2022년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자연재해’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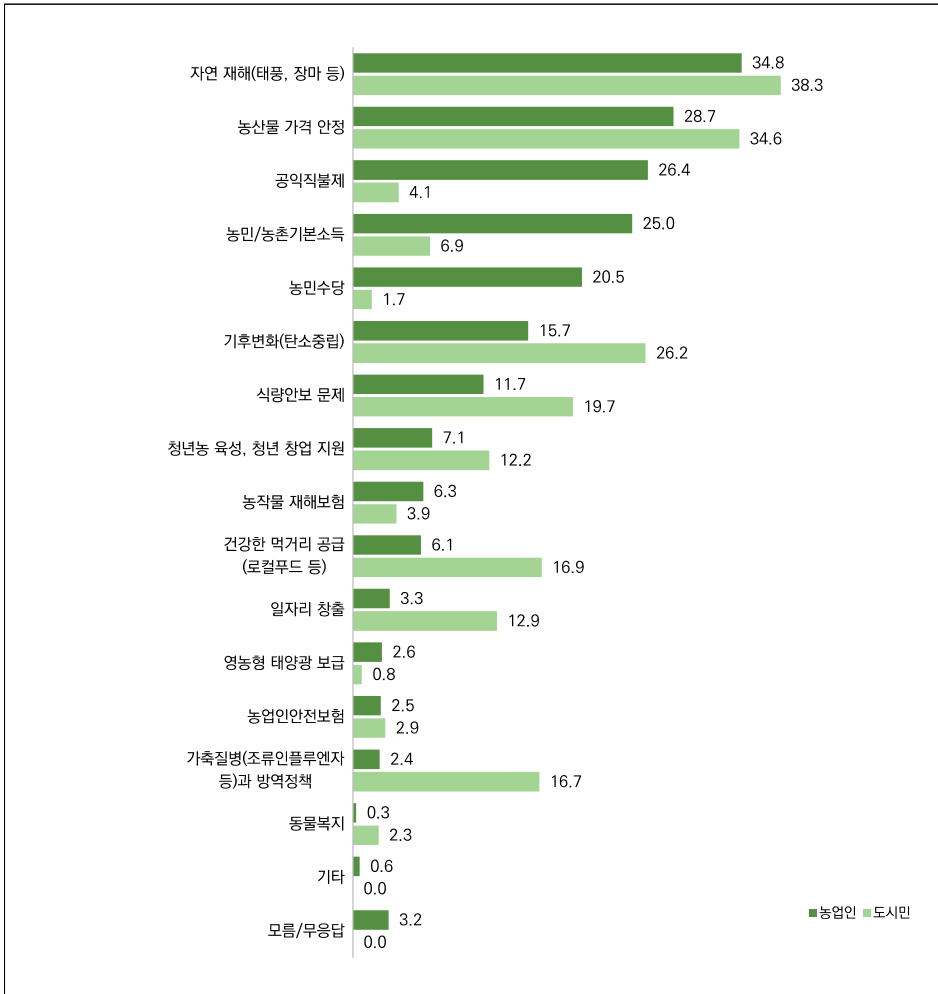
-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농업인 34.8%, 도시민 38.3%)와 ‘농산물 가격 안정’(농업인 28.7%, 도시민 34.6%)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음.

- 그 외 이슈들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관심도에 차이를 보였음.

- 도시민은 ‘기후변화(탄소중립)’(26.2%), ‘식량안보 문제’(19.7%), ‘건강한 먹거리 공급’(16.9%), ‘가축 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 정책’(16.7%) 등 주로 환경과 먹거리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농업인은 ‘공익직불제’(26.4%), ‘농민/농촌 기본소득’(25.0%), ‘농민수당’(20.5%) 등 주로 농업소득 관련 분야가 높게 나타남.

〈그림 2-31〉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중복응답)

단위: %



주: '응답 항목' 변경에 따라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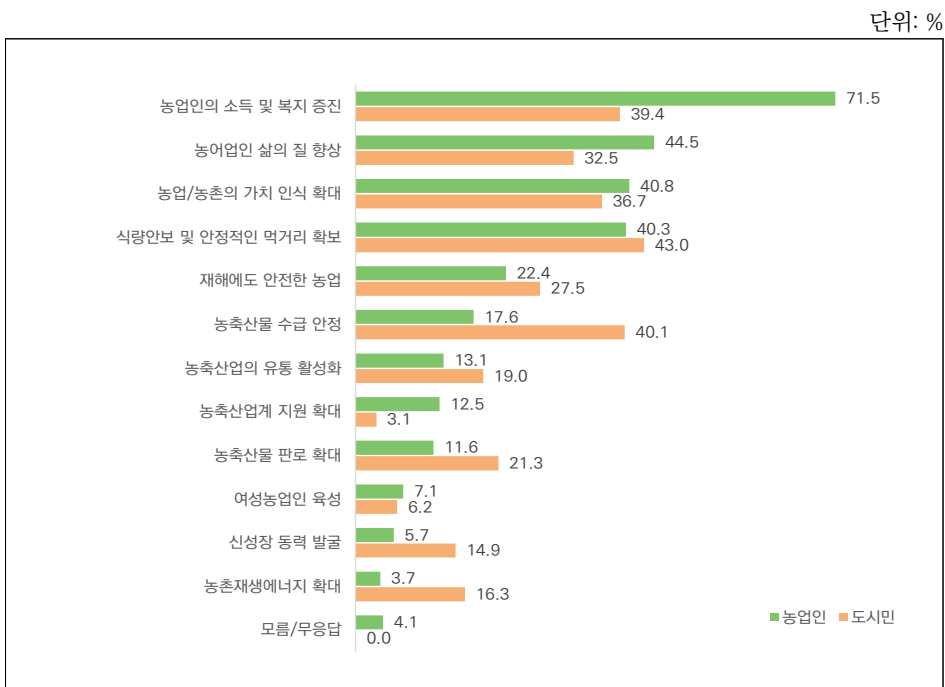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3. 농업·농촌을 위한 정부의 역할, ‘농가소득 증진’과 ‘미래 먹거리 확보’

○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농업인은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71.5%)을, 도 시민은 ‘식량안보 및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43.0%)를 가장 많이 꼽아 농업인과 도 시민 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음.

○ 이어 농업인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44.5%),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40.8%), ‘식량안보 및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40.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도 시민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40.1%),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39.4%),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3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32.5%) 등의 순이었음.

〈그림 2-32〉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4.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늘리거나 현 수준 유지’

○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81.5%, 도시민(비율)은 47.9%, ‘투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0%, 도시민(비율)은 0.6%,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농업인 11.5%, 도시민 45.1%이었음. 이에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시민의 경우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와 ‘투자를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2011년 대비 각각 25.8%p와 3.2%p 감소하였으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2%p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011년(78.5%) 대비 3.0%p 증가하였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4.8%p 감소해 여전히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 지지율이 높았음.

〈표 2-30〉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 고려 시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1	2015	2016	2020	2022	2011	2014	2015	2016	2020	2022
투자를 줄여야 한다	2.4	3.1	5.6	2.2	2.0	3.8	7.3	10.9	6.7	2.5	0.6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6.3	14.8	13.9	11.0	11.5	15.9	34.2	32.1	37.2	48.3	45.1
투자를 늘려야 한다	78.5	73.8	73.6	84.0	81.5	73.7	50.9	50.7	49.7	40.6	47.9
잘 모르겠다	2.8	5.3	5.9	2.2	3.0	6.6	7.6	6.3	6.5	8.6	6.5
모름/무응답	-	3.1	1.1	0.5	1.9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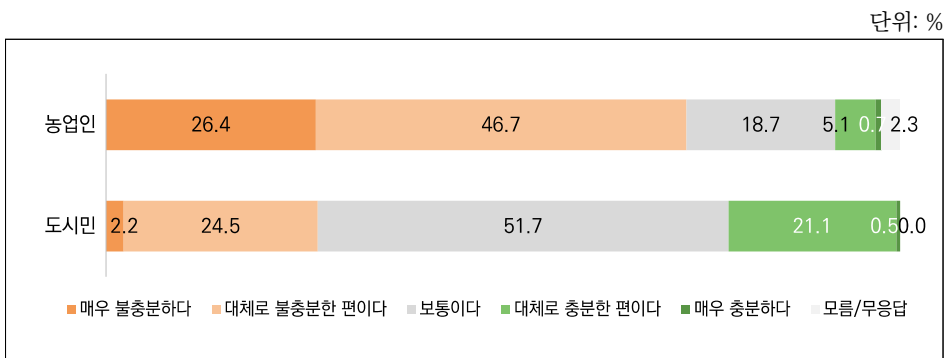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4.5.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정부 지원 ‘충분하다’,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식차 커

○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73.1%였으며, ‘충분하다’는 5.8%에 그쳤음.

○ 한편, 도시민은 ‘충분하다’ 21.6%, ‘불충분하다’ 26.7%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도 51.7%였음.

〈그림 2-33〉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정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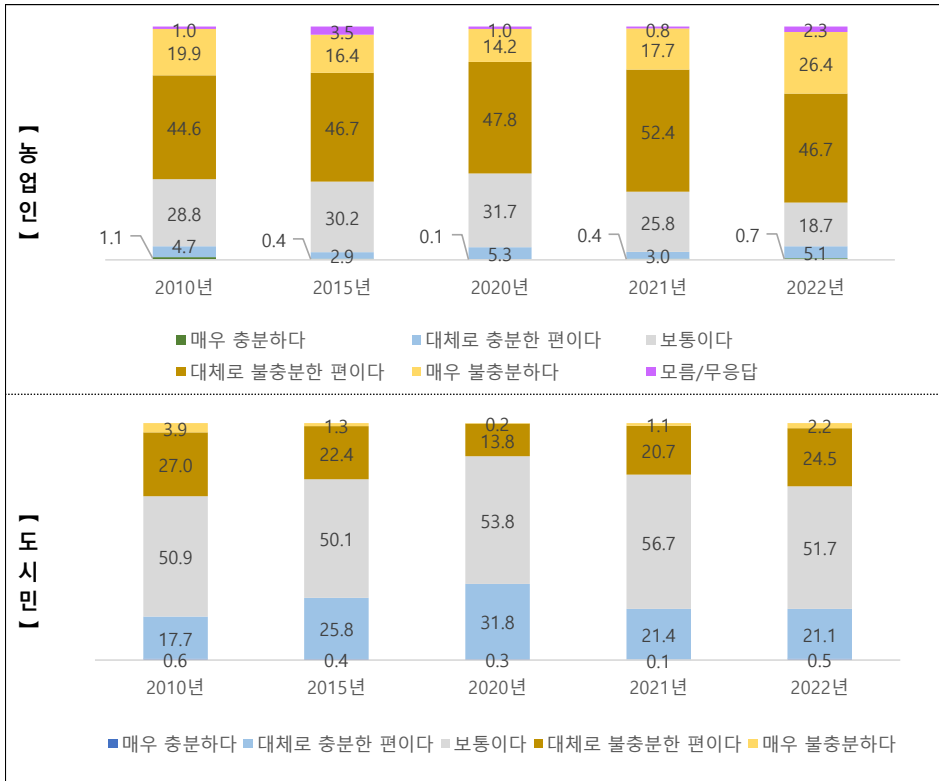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또한, ‘불충분하다’라는 응답 비율은 도시민(26.7%) 대비 농업인(73.1%)이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도시민(51.7%) 대비 농업인(18.7%)이 33.0%p 낮게 나타남.

- 특히,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021년 17.7%에서 2022년 26.4%로 8.7%p 증가하였음.

〈그림 2-34〉 연도별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정도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4.6. 도시민 10명 중 8명,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용어 ‘접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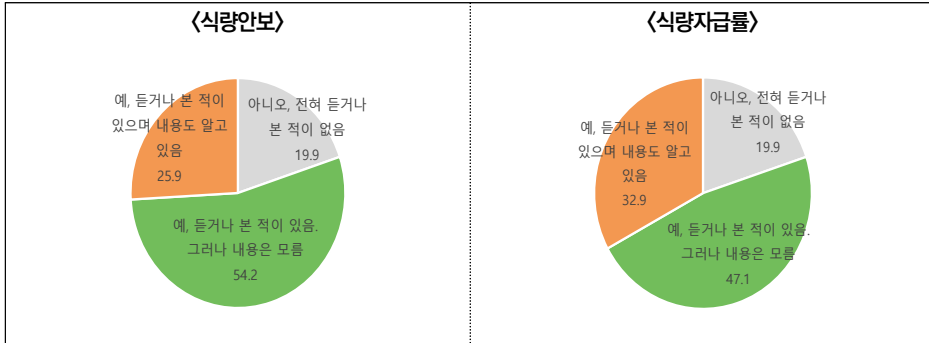
○ ‘식량안보’라는 용어를 ‘듣거나 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54.2%, ‘내용까지 알고 있다’ 25.9%, ‘전혀 듣거나 본적이 없음’ 19.9%였음.

○ 또한, ‘식량자급률’을 ‘듣거나 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1%, ‘내용까지 알고 있다’ 32.9%, ‘전혀 듣거나 본적이 없음’ 19.9%로 나타남.

○ 따라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용어를 접해 본 도시민은 약 80%로 나타남.

〈그림 2-35〉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7. 현재 식량안보 수준 10년 전 ‘그대로’, 10년 후 ‘개선 또는 그대로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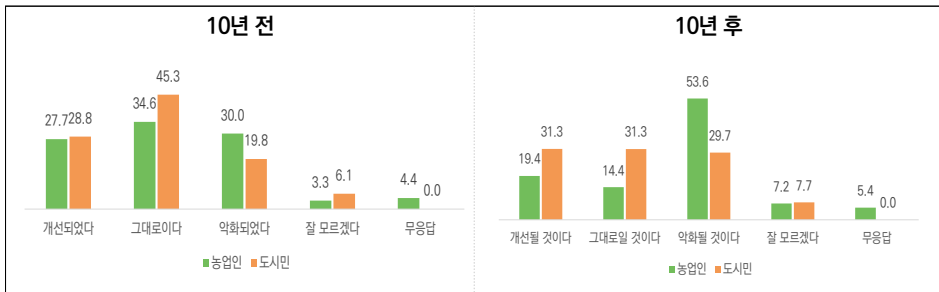
○ 10년 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그대로’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34.6%, 도시민(응답)은 45.3%로, 농업인 대비 도시민 응답 비율은 10.7%p 높았음.

- 이어 ‘개선되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27.7%, 도시민(비율)은 28.8%로 비슷한 수준임. ‘악화되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30.0%, 도시민(비율)은 19.8%로, 농업인 대비 도시민 응답 비율은 10.2%p 낮았음.

○ 또한, 농업인의 과반이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악화될 것이다’(53.6%)라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개선(31.3%)되거나 그대로(31.3%)일 것이다’라고 62.6%가 응답해 농업인 대비 도시민이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2-36〉 10년 전·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8. 식량안보 위협 요소, ‘극한 기후 현상 및 기후변화’ 가장 많이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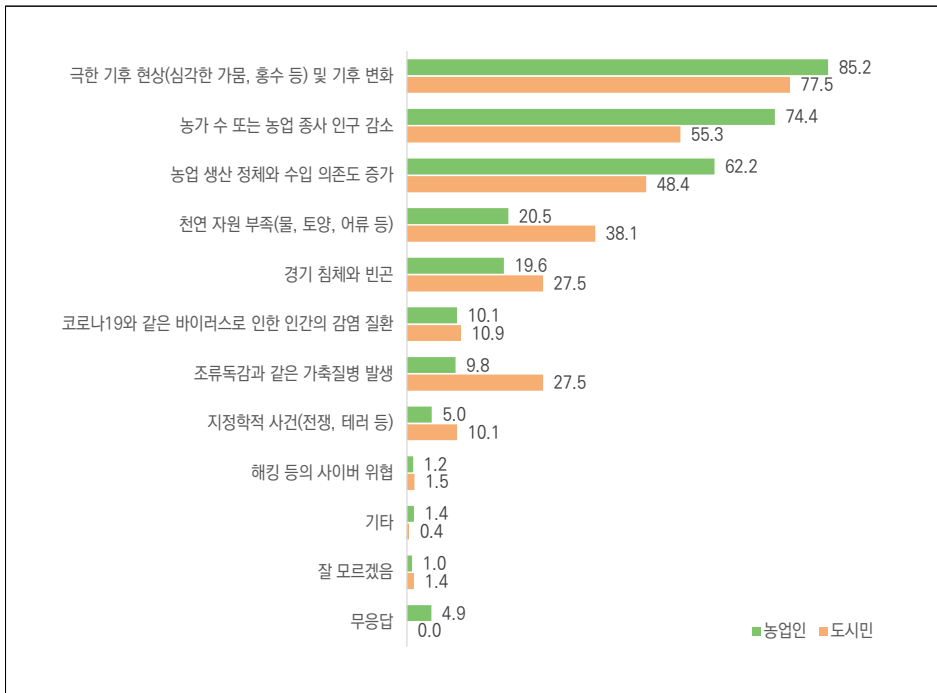
○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극한 기후 현상(심각한 가뭄, 홍수 등) 및 기후변화’(각각 85.2%, 77.5%)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이어, 농업인은 ‘농가 수 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74.4%), ‘농업 생산 정체와 수입 의존도 증가’(62.2%), ‘천연자원 부족(물, 토양, 어류 등)’(20.5%), ‘경기 침체와 빈곤’(19.6%),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10.1%),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질병 발생’(9.8%) 등의 순이었음.

- 도시민은 ‘농장 수 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55.3%), ‘농업 생산 정체와 수입 의존도 증가’(48.4%), ‘천연자원 부족(물, 토양, 어류 등)’(38.1%), ‘경기 침체와 빈곤’(27.5%),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질병 발생’(2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농업인과 의견 차이를 보였음.

〈그림 2-37〉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중복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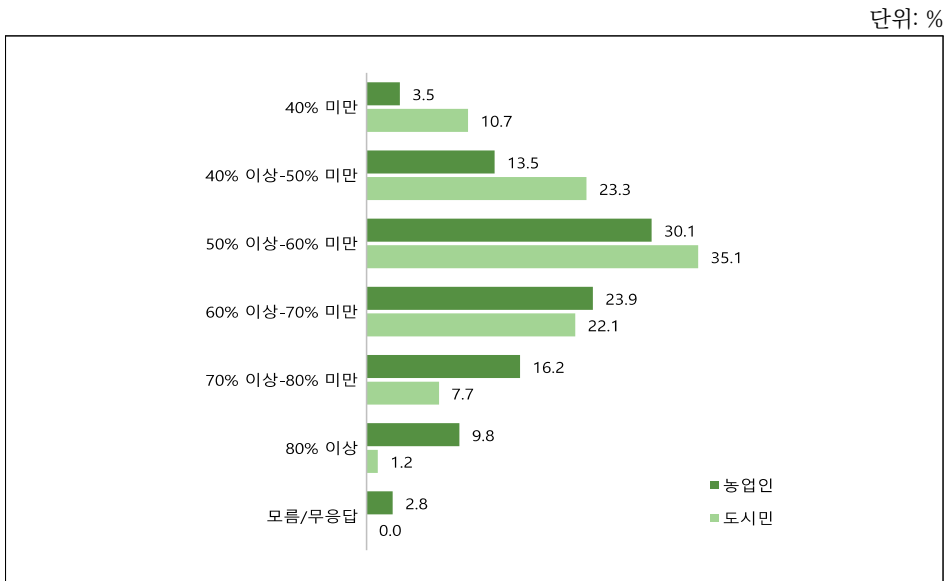
4.9.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 '50~60% 미만' 유지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50% 이상~60% 미만'(각각 30.1%, 35.1%)을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49.9%, 도시민(비율)은 31.0%로 나타남.

- 특히, 도시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44.0%),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36.3%), 농사를 짓는 가족이 없고(36.8%), 자영업(38.5%)과 주부(37.6%) 계층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을 '50% 이상~60%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4.4%임을 고려할 때 도시민과 농업인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림 2-38〉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0. 탄소중립 달성에 농축산물 역할 ‘막중하다’, 농업인 52.2%, 도시민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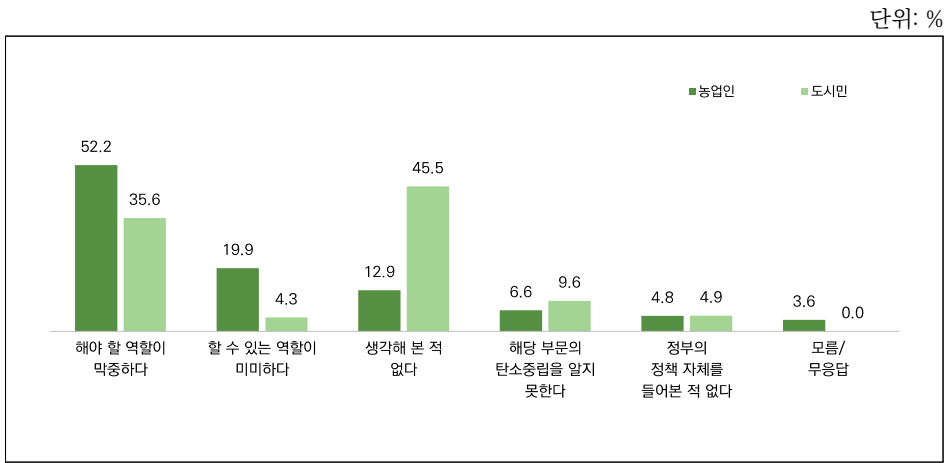
○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52.2%, 도시민(비율)은 35.6%로 나타남.

○ 또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 ‘생각해 본 적 없다’, ‘해당 부문의 탄소중립을 알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 자체를 들어본 적 없다’ 합산)에 대해 농업인 44.2%, 도

시민 64.3%로 응답하였음.

- 특히,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45.5%로 농업인(12.9%)에 비해 32.6%p 높게 나타남.

〈그림 2-39〉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역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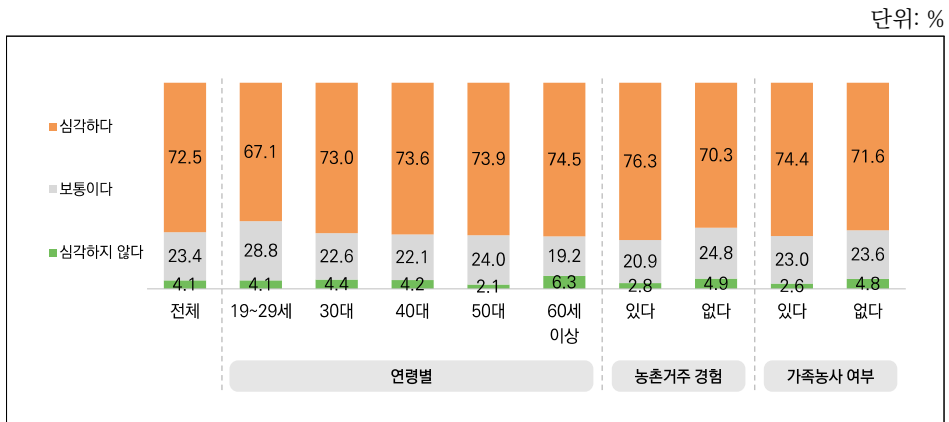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1. 온실가스 배출 ‘심각’ 72.5%, 감축 방안으로 ‘포장재 사용 줄이기’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72.5%,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은 4.1%에 불과하였음.

- 특히,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상일수록, 농촌 거주 경험과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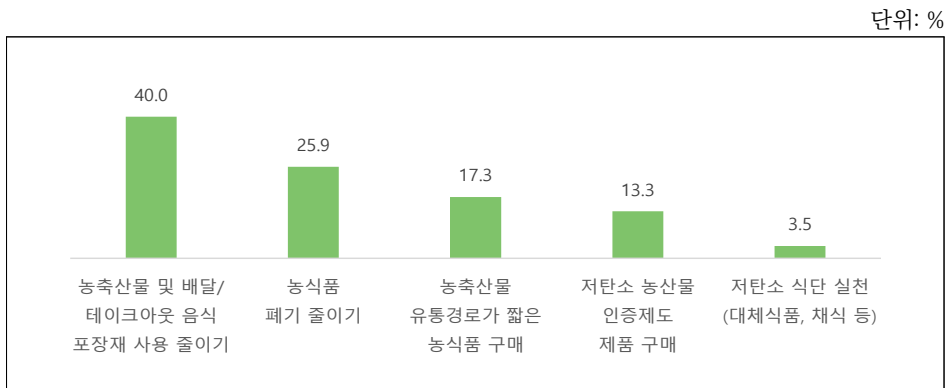
〈그림 2-40〉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심각성 정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도시민은 식품 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으로 ‘농축산물 및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포장재 사용 줄이기’(40.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농식품 폐기 줄이기’(25.9%), ‘농축산물 유통경로가 짧은 농식품 구매’(17.3%),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제품 구매’(13.3%), ‘저탄소 식단 실천’(3.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41〉 식품 소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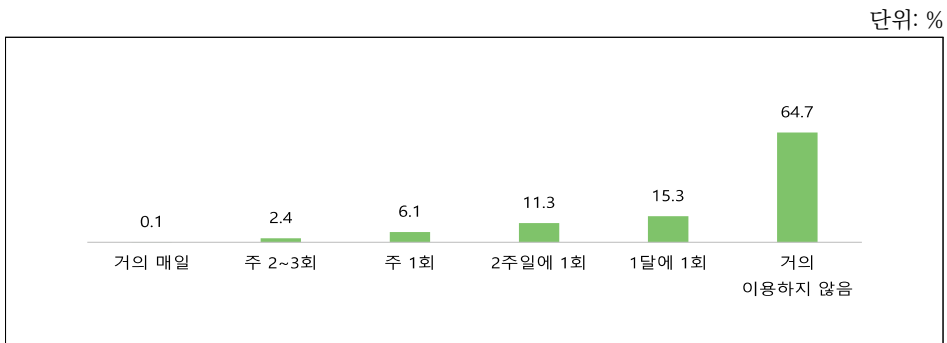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2. 도시민 10명 중 4명, 로컬푸드 매장 이용, ‘결품’과 ‘다양성 부족’ 불편

○ 평소 로컬푸드 매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64.7%임. 또한, 이용하는 경우에 ‘1달에 1회’(15.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주일에 1회’(11.3%), ‘주 1회’(6.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도시민은 월평균 생활비가 많을수록, ‘주부’와 ‘자영업’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42〉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빈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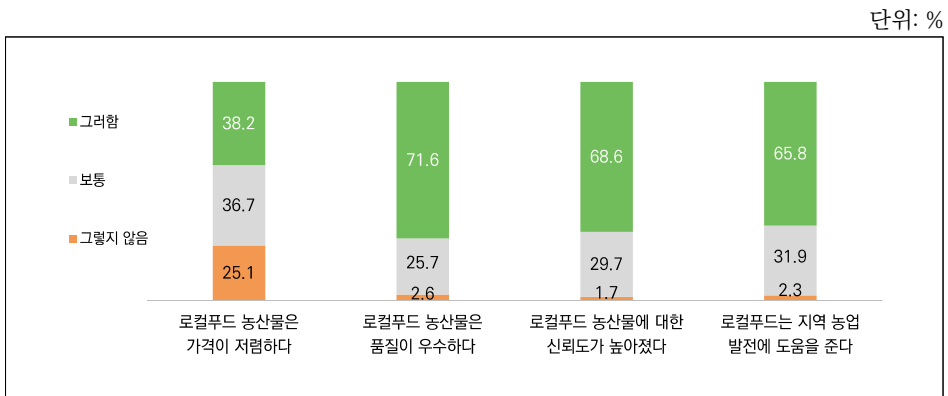
○ 로컬푸드 매장 이용자(n=529)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와 관련된 품질과 건강, 경제 등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로컬푸드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다’ 71.6%, ‘신뢰도가 높아졌다’ 68.6%, ‘지역 농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 65.8%로 긍정 의견이 높았음.

- 반면, ‘로컬푸드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응답한 도시민(비율)은 38.2%, ‘그렇지 않다’는 25.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약 10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로컬푸드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로컬푸드 매장 이용자가 점차 확대된다면 지역의 농업 여건과 소비 등의 인식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2-43〉 로컬푸드 이용에 따른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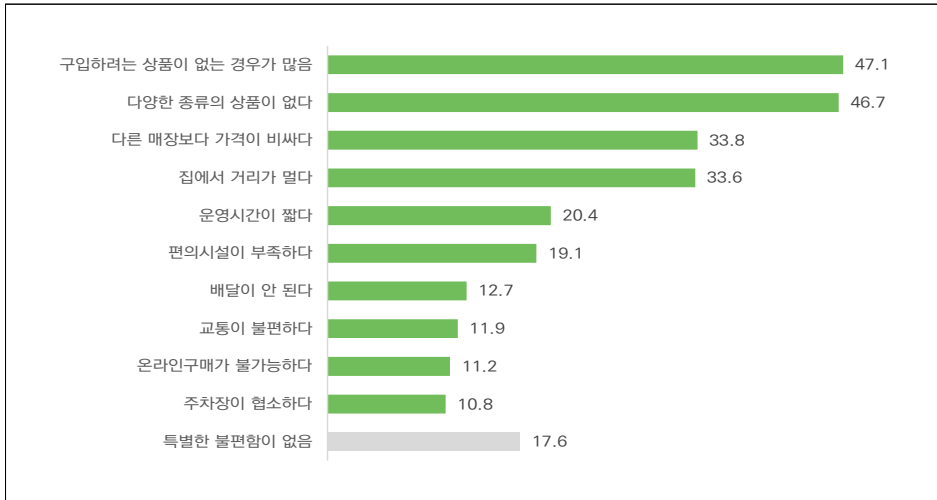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로컬푸드 매장 이용자(n=529)는 로컬푸드 매장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47.1%),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없다’(46.7%)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이어 ‘다른 매장보다 가격이 비싸다’(33.8%), ‘집에서 거리가 멀다’(33.6%), ‘운영시간이 짧다’(20.4%), ‘편의시설이 부족하다’(19.1%) 등의 순으로 응답함. 한편,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라는 의견도 17.6%이었음.

〈그림 2-44〉 평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시 불편한 점(중복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3.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 수준 확대’ 가장 필요해

○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농업인은 ‘보장 수준 확대’(60.1%)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 보조율 확대’(50.6%),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47.5%), ‘보장 재해 확대’(46.7%),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30.1%), ‘정보공개’(22.1%), ‘신규 품종으로 확대’(10.4%), ‘품질 평가 반영’(10.0%), ‘가입(신청) 기간 확대’(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보장 수준 확대’와 ‘보장 재해 확대(법정전염병 등)’라는 응답 비율은 60세 미만, 영농경력 20년 미만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정보 보조율 확대’,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등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20년 이상인 계층에서 높았음.

〈표 2-31〉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중복응답)

단위: %

항목		보장 수준 확대	정부 보조율 확대	신속 공정한 손해 평가	보장 재해 확대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정보 공개	신규 품종으로 확대	품질 평가 반영	가입 (신청) 기간 확대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61.0	50.6	47.5	46.7	30.1	22.1	10.4	10.0	6.6	0.9	6.8
연령	60세 미만	76.9	45.9	44.2	52.9	22.3	20.2	10.3	7.9	6.2	1.7	5.4
	60세 이상	56.3	52.2	49.6	44.0	33.9	22.2	11.0	10.1	6.3	0.7	6.8
	무응답	57.5	50.0	41.7	50.0	22.5	25.0	6.7	14.2	9.2	0.8	9.2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67.7	48.2	44.8	55.8	24.4	18.9	12.8	9.5	6.7	1.2	4.3
	20년 이상	58.0	52.1	49.8	41.3	34.6	23.0	10.0	9.8	6.1	0.8	7.6
	무응답	58.6	49.2	43.0	49.2	22.7	25.8	6.3	12.5	8.6	0.8	9.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4.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92.7%, 정확성 향상 위해 ‘시스템’과 ‘교육’ 필요

○ 농업용 면세유 지원, 직불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92.7%로 나타남.

〈표 2-32〉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성 인지도

단위: %

항목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원지 모른다	모른다 (소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소계)	모름/ 무응답	4점 평균 (점)
전체		0.9	3.2	4.1	29.4	63.3	92.7	3.2	3.60
연령	60세 미만	1.2	1.2	2.5	24.0	71.5	95.5	2.1	3.69
	60세 이상	0.7	4.1	4.7	31.6	60.3	91.9	3.4	3.57
	무응답	1.7	1.7	3.3	27.5	64.2	91.7	5.0	3.62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1.2	4.7	5.9	32.6	59.5	92.1	2.0	3.53
	2천만 원 이상	0.5	2.4	2.9	27.5	65.8	93.3	3.8	3.65
	무응답	1.6	1.6	3.3	27.6	64.2	91.9	4.9	3.6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지 면적, 주로 기르는 작물이나 축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4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하기도 함’(20.6%)과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써주지 않음’(20.3%)은 비슷하게 응답하였음.

- ‘농지 면적, 주로 기르는 작물이나 축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에서,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써주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3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

단위: %

항목		농지 면적, 주로 기르는 작물이나 축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하기도 함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써주지 않음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44.3	20.6	20.3	1.8	13.0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49.6	20.2	15.3	1.0	13.8
	2천만 원 이상	40.2	20.9	24.0	2.2	12.7
	무응답	45.5	20.3	20.3	2.4	11.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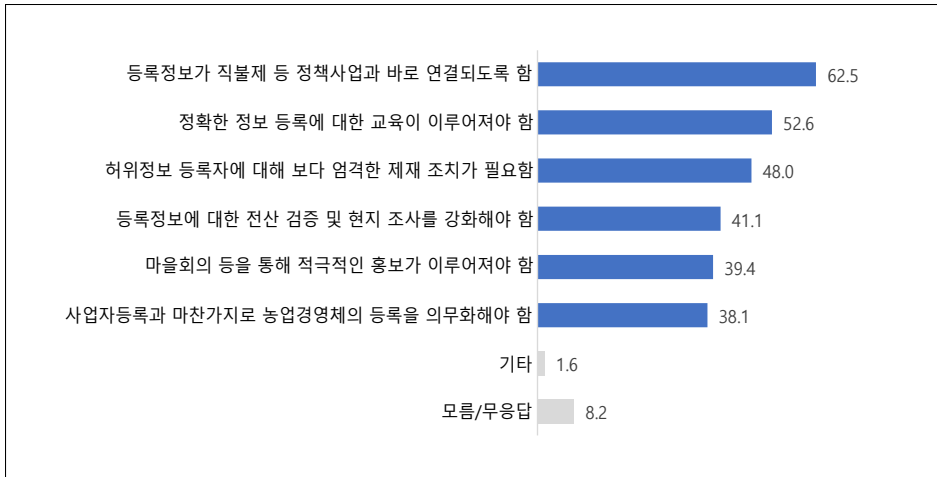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등록정보가 직불제 등 정책사업과 바로 연결되도록 함’(62.5%)을 꼽았음. 이어 ‘정확한 정보 등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52.6%), ‘허위정보 등록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48.0%), ‘등록정보에 대한 전산 검증 및 현지 조사를 강화해야 함’(41.1%), ‘마을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39.4%),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함’(38.1%) 등의 순이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⁶⁾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경영 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가야 할 것임.

〈그림 2-4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중복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5.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의 장점과 애로사항 모두 ‘소량 납품’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비율)은 15.3%, ‘출하하고 있지 않다’는 77.4%로 나타남.

- ‘출하하고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영농경력 20년 미만, 대졸 이상에서 높았음.

6) 지원사업에는 공익직불금,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양육 서비스 지원, 농협 조합원 가입,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있음.

〈표 2-34〉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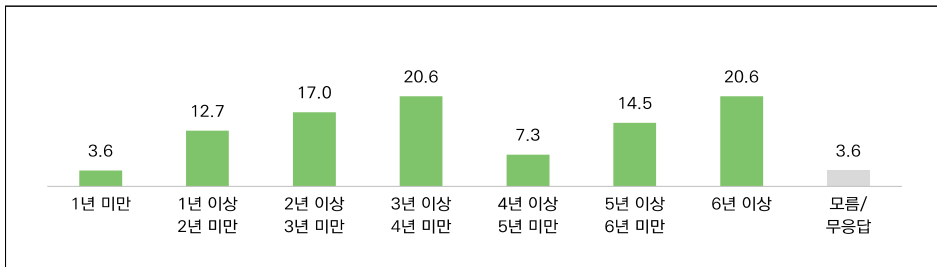
항목		출하하고 있지 않음	출하하고 있음	모름/무응답
전체		77.4	15.3	7.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7.4	12.9	9.8
	대졸 이상	77.5	18.0	4.4
	무응답	76.9	17.4	5.8
영농 경력	20년 미만	79.6	17.4	3.0
	20년 이상	76.5	13.8	9.6
	무응답	75.8	17.2	7.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는 응답자(n=165)는 출하 기간이 ‘6년 이상’(20.6%), ‘3년 이상 4년 미만’(2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17.0%), ‘5년 이상 6년 미만’(14.5%) 등의 순이었음.

〈그림 2-46〉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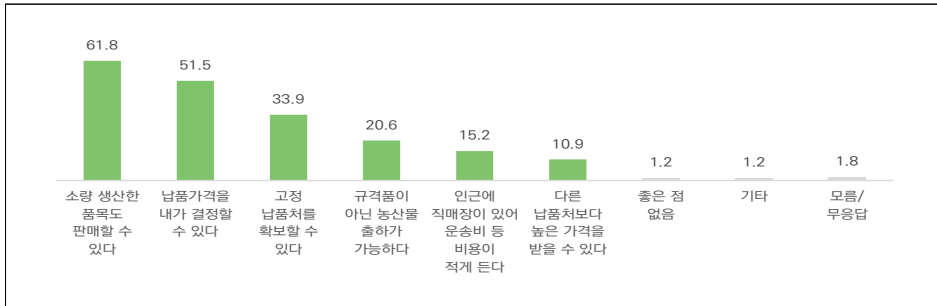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응답자(n=165)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의 장점으로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할 수 있다’(61.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납품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51.5%), ‘고정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다’(33.9%), ‘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출하가 가능하다’(20.6%), ‘인근에 직매장이 있어 운송비 등 비용이 적게 든다’(15.2%), ‘다른 납품처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10.9%) 등의 순이었음.

〈그림 2-47〉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장점(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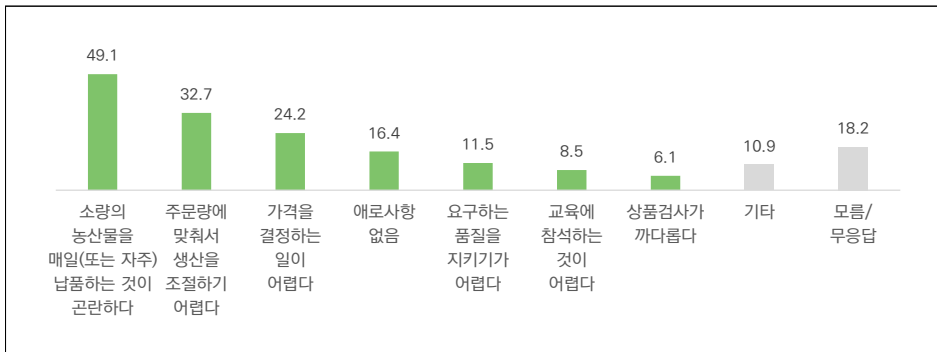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다는 응답자(n=165)는 출하 시 애로사항으로 ‘소량의 농산물을 매일(또는 자주) 납품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문량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기 어렵다’(32.7%),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애로사항 없음’은 16.4%이었음.

○ 농업인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의 장점과 애로사항으로 동시에 ‘소량 생산 품목 납품’을 꼽았음. 즉,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량 다품목 중심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지만 동시에 매일 납품을 위한 포장 등의 출하 작업과 운송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음.

〈그림 2-48〉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의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6. 도시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농업과 농촌이 ‘중요하다’ 93.6%

○ 2022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7)와 한국 간 국민 의식에 대해 비교하였음. 각 국가 간 조사 시기와 조사방식,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농정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 특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미래를 위해 농업과 농촌이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합산)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93.6%, EU 95.0%로 양국 모두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 한편,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은 한국 4.3%, EU 1.0%이었음.

7) ‘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2022년 6월 발간)는 15세 이상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26,5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2~3월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임.

〈표 2-35〉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한국·EU)

단위: %

항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음(소계)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함 (소계)	잘 모르겠다
한국	0.0	2.1	2.1	44.9	48.7	93.6	4.3
EU	3.0	1.0	4.0	35.0	60.0	95.0	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European Union(2022).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Eurobarom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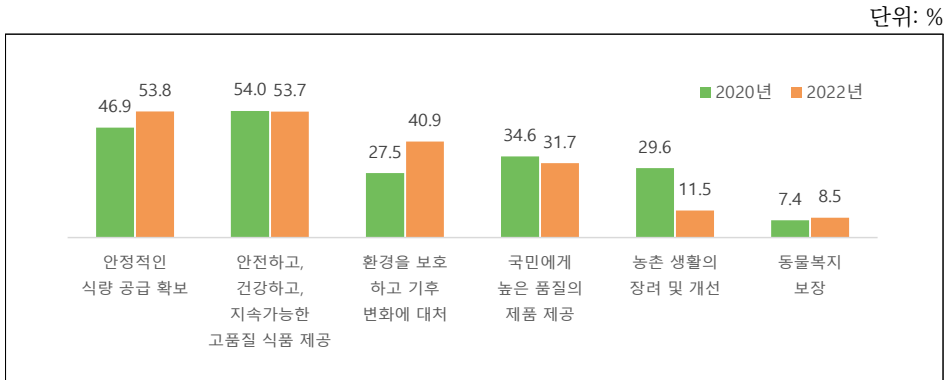
4.17.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여전히 높아

○ 도시민은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의 주요 책임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 확보’(53.8%),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식품 제공’(53.7%)을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함’(40.9%),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 제공’(31.7%), ‘농촌 생활의 장려 및 개선’(11.5%)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식품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20년(54.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농업인의 주요한 책임으로 꼽혔음.

-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27.5%) 대비 13.4%p, ‘안정적인 식량 공급 확보’는 2020년(46.9%) 대비 6.9%p 증가한 반면, ‘농촌 생활을 장려 및 개선’은 2020년(29.6%) 대비 18.1%p,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 제공’은 2020년(34.6%) 대비 2.9%p 감소하였음.

〈그림 2-49〉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의 주요 책임(중복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4.18. 유기농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비싸다’ 96.7%

- 한국(도시민)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EU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음.
- ‘일반 식품보다 비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96.7%, EU 92.0%로 양국 모두 비싼 가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일반 식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86.2%, EU 74.0%, ‘살충제, 비료, 항생제 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한다’ 한국 85.6%, EU 83.0%, ‘일반 식품보다 우수한 환경 관행으로 생산된다’ 한국 85.5%, EU 81.0%, ‘일반 식품에 비해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다’ 한국 83.0%, EU 80.0%, ‘일반 식품보다 맛이 좋다’에 한국 79.1%, EU 65.0%로 응답하여, 한국이 EU보다 모든 문항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음.

○ 한편, ‘거주지의 슈퍼마켓, 상점 또는 시장에서 찾기 어렵다’라는 진술에 한국 (75.7%)보다 EU(41.0%)는 34.7%p 크게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 한국과 EU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똑같은 제품이라도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한적인 구매 장소의 불편함과 구매 비용의 부담 등이 부족한 점으로 파악됨.

〈표 2-36〉 유기농 식품 관련 인식 수준(한국·EU)

단위: %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 하지 않음 (소계)		동의 하는 편		매우 동의		동의 (소계)		잘 모르겠음	
	한국	EU	한국	EU	한국	EU	한국	EU	한국	EU	한국	EU	한국	EU
일반 식품보다 비싸다	0.3	1.0	0.9	5.0	1.1	6.0	34.3	32.0	62.4	60.0	96.7	92.0	2.1	2.0
살충제, 비료, 항생제 등에 대한 규제를 준수한다	0.1	2.0	6.8	8.0	6.9	10.0	49.5	46.0	36.1	37.0	85.6	83.0	7.5	7.0
일반 식품보다 우수한 환경 관행으로 생산된다	0.0	2.0	6.3	11.0	6.3	13.0	45.7	48.0	39.8	33.0	85.5	81.0	8.2	6.0
일반 식품에 비해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다	0.1	2.0	8.2	11.0	8.3	13.0	45.7	45.0	37.3	35.0	83.0	80.0	8.7	7.0
일반 식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0.2	4.0	6.7	17.0	6.9	21.0	45.3	46.0	40.9	28.0	86.2	74.0	6.9	5.0
일반 식품보다 맛이 좋다	0.3	6.0	14.2	23.0	14.5	29.0	45.1	41.0	34.1	24.0	79.1	65.0	6.3	6.0
거주지의 슈퍼마켓, 상점 또는 시장에서 찾기 어렵다	1.7	24.0	20.3	31.0	22.1	55.0	40.9	27.0	34.8	14.0	75.7	41.0	2.3	4.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European Union(2022).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Eurobarometer.

제3장

농정 건의 및 제안



3

농정 건의 및 제안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것을 취합,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음.
- 자유의견란⁸⁾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수요 등은 도시민 1,993건, 농업인 843건 등 전체 2,836건으로 집계되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농업인은 ‘농업·농촌 정책’(220건), ‘농산물 유통, 가격’(147건), ‘농촌인력, 후계인력’(120건), ‘영농자금, 농가 부채’(64건), ‘농지’(61건), ‘농촌 자연환경’(55건), ‘농촌관광’(36건), ‘농산물 안전성’(31건), ‘품목별 정

⁸⁾ 도시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에 대해 3장에서는 요약·정리한 내용만 제시함.

책’(12건) 등의 순으로 건의하였음.

-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 가격’(486건), ‘농산물 안전성’(287건), ‘농촌인력, 후계인력’(279건), ‘농업·농촌 정책’(150건), ‘농촌지역 개발, 복지’(136건), ‘농촌 자연환경’(118건), ‘영농자금, 농가 부채’(114건), ‘농촌관광’(109건), ‘품목별 정책’(79건), ‘농지’(44건) 등의 순으로 언급하였음.

○ 농업인은 전체 843건 중 ‘농업·농촌 정책’(220건)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요 의견으로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언급했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농 방지를 위한 정책을 요구함. 또한, ‘농산물 유통, 가격’(147건)에 대해 온라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을 건의하였음.

- 이어 농업인은 ‘농촌인력, 후계인력’(120건)과 관련해 후계자 양성을 위한 지원책 및 교육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건의했으며, ‘농지’(61건)와 관련해 절대 농지구역 보존,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허가제를 요구하였음.
- 또한, ‘농촌 자연환경’(55건)과 관련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농업인 대상 환경보전직불제 시행을 언급하였음.
- ‘기타’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언론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과 농촌지역 음주 운전 단속, 신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도시민은 전체 1,993건 중 ‘농산물 유통, 가격’(486건)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중간 유통 폭리 근절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가격 폭락 방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였음. 또한, ‘농산물 안전성’(287건)과 관련해 잔류농약 검사와 농작물 안전성 관리 및 검사 강화, 농약 사용에 대한 정기적 교육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이어 도시민은 ‘농촌인력, 후계인력’(279건)과 관련해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언급함. ‘농업·농촌 정책’(150건)과 관련해 농업인의 기초소득 보장과 청년농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고, 농업·농촌 유지·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동물복지정책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농촌지역 개발, 복지’(136건) 분야로 노인,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줄 것과 개척 위주의 개발은 필요하지만 난개발은 자제되어야 함을 강조함. ‘농촌 자연환경’(118건)과 관련해 폐기물(폐수 포함) 처리 교육과 마을 경관을 해치는 폐가에 대한 정비를 건의하였음.
- 또한, ‘영농자금, 농가 부채’(114건)와 관련해 영농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금액 확대를 언급하였고, 청년농 지원 자금이 필요함을 강조함. ‘농촌관광’(109건)과 관련해 농촌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먹거리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마지막으로 ‘품목별 정책’(79건)과 관련해 주요 품목 위주의 지원을 지양할 것과 우수한 품목 개발을 당부하였으며, ‘농지’(44건)와 관련해서는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 필요와 농지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을 건의하였음.

〈표 3-1〉 농정 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993건, 농업인 843건)

단위: 건

분야	구분	건수	요지
농업·농촌 정책	농업인	220	■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필요 ■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이농 방지를 위한 정책 요구
	도시민	150	■ 농업인의 기초소득 보장 필요, 청년농을 위한 지원 확대 ■ 농업·농촌 유지, 보존을 위한 정책 필요, 동물복지 정책의 활성화
농산물 유통, 가격	농업인	147	■ 농산물 중간 유통의 폭리 근절(농가소득 보장) ■ 온라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도시민	486	■ 중간 유통 폭리 근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가격 폭락 방지 및 정부 지원 필요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업인	120	■ 후계자 양성을 위한 지원책 및 교육 지원 강화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
	도시민	279	■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필요 ■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업인	64	■ 영농자금의 저금리 지원 필요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부채 지원 필요(특히, 고령층)
	도시민	114	■ 영농자금 대출 조건 완화 및 확대 ■ 청년농 지원 자금 필요
농촌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30	■ 농업인 복지 혜택 향상 필요 ■ 농촌지역 개발은 지역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도시민	136	■ 노인 복지 강화 필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복지 혜택 강화 ■ 개척 위주의 개발 필요, 난개발 자제 필요
농촌 자연환경	농업인	55	■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자연환경 훼손 방지 ■ 농업인에게 환경보전직불제 시행 필요
	도시민	118	■ 폐기물 처리 교육 필요,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지양해야 함 ■ 방지된 폐가 등에 대한 조치 필요
농촌관광	농업인	36	■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필요 ■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도시민	109	■ 농촌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먹거리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지로 개발 허가
농산물 안전성	농업인	31	■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관리 강화, 잔류농약 검사 강화 ■ GMO 농산물의 수입 규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도시민	287	■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작물 안정성 관리 및 검사 강화 ■ 농약 사용에 대한 정기적 교육 필요, 종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품목별 정책	농업인	12	■ 미래를 위한 대체 품목 개발 필요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품목 재배
	도시민	79	■ 주요 품목 위주의 지원을 지양해야 함 ■ 우수한 품목 개발 필요
농지	농업인	61	■ 절대 농지구역 보존 필요,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허가제 요구
	도시민	44	■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 필요, 난개발은 자제해야 함 ■ 농지에 대한 세금 우대 필요, 농지 관리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
기타 (통상, 농업기관 등)	농업인	67	■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언론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함 ■ 농촌지역 음주 운전 단속, 신기술 교육 필요
	도시민	191	■ 농업·농촌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 ■ 농업·농촌 정책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정 건의 전문(농업인·도시민)

□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농촌 정책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업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농업·농촌이 유지, 보존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농업정책이 요구된다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농산물 수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농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정책에 실제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좋은 농업·농촌지역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이 형평성이 떨어진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대농 위주의 규모화 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젊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재정 및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

젊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재정 및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

② 농촌관광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이 필요하다
농촌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농촌으로 관광객이 유치되어야 한다
저렴한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차별적인 농촌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먹거리 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③ 농산물 유통, 가격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요구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
농산물 중간 유통의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하여 농산물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간소화로 가격 안정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유통단계를 줄여서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적정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산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중간 유통 마진을 낮추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산지가와 소비자가 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축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유기농 및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간 유통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한 원활한 농산물 수급이 요구된다
국산 농산물의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 안정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컬푸드를 통해 농산물이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 폭락을 방지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필요하다
매점매석을 없애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비축물을 제때 보급이 요구된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유통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직거래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유통 가격 마진이 없다
직거래 가격이 비싸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배송 가격이 비싸다
다양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 농산물 판매 활성화가 요구된다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달걀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및 공급하여야 한다

농산물 가격 폭등을 줄여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원산지, 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쌀 등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특작물 재배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④ 농산물 안전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해야 한다
농약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신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유기농 재배가 필요하다
안전성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유기농 제품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홍보가 필요하다
GMO 농산물의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
자연친화적 농약 사용 도입이 필요하다
인체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농약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농업인에게 정기적 교육이 요구된다
원산지 및 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이력표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농약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수요량 파악을 잘하여 수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 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유기농으로 재배해야 한다
농산물 안정성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유기농 제품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농약 및 화학제품 관리가 요구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홍보가 필요하다
GMO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국산과 수입 농산물 간의 구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연친화적 농약 사용 도입이 필요하다

⑤ 품목별 정책

미래를 위한 먹거리 품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품목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품목별 재배가 권장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 주어야 한다
농촌 경제가 증대될 수 있는 농작물 재배가 필요하다
특정 한가지 품목에 올인하지 말고 대체 품목 개발도 요구된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품목별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 유동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안정적인 품목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한다
정확한 수요량 파악으로 수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특화 상품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
수입으로 인해 남는 우리 쌀의 효율적 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⑥ 영농자금, 농가부채

영농자금 대상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다

농가 부채 절감(당감) 정책이 필요하다

영농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영농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 시 규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재해로 인한 농가 부채로 생계가 위험한 고령층 농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사료값이 너무 비싸다

소득 및 농지 평수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영농기반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⑦ 농촌인력, 후계인력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젊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젊은 층 대상 복지 혜택을 강화시켜야 한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원활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귀농 자녀에게 교육비 무료 지원

농업에도 첨단과학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조성해야 한다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토지 지원이 필요하다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주택 관련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봉사자 인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농촌지역 인력증개센터 대상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해야 한다
농촌지역 마트 및 쇼핑몰 확충이 필요하다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팜 및 기계화가 필요하다
농업에도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빈집을 임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빈농가 또는 폐농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스마트팜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농업 분야 개발이 필요하다

⑧ 농지

도시민 농지 구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지법 위반자의 처벌이 강화(가짜 농업인 처벌 강화 등)되어야 한다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지 매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영농자금은 저금리로 지원되어야 한다
밭 경지를 정리하여 기계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많다
농지 및 시설물의 상속세, 증여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절대 농지구역 보존이 필요하다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다
농지가 부족하다
300평 미만의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직불금 수령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농지 매입과 임대차 농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지 목적 변경이 어렵다
임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농지가 저렴하게 임대되어야 한다
농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농가 부채 분할 상환이 필요하다
농기계,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절대 농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농지 취득 후 용도 변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지양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지를 잘 관리 보전해야 한다
농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민도 농지 매매가 가능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인 경우에 농지 소유주와의 소통이 어렵다
임차 농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제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용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농촌 지원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⑨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복지 혜택 향상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의료시설, 교육 환경 개선 및 확충이 시급하다
난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확충이 필요하다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노인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 검진 혜택이 매년 주어져야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축산업 농가를 단지화시켜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

농촌 지역개발은 지역민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에 공장으로 인한 오염이 많다
방치된 폐건물이 보기 좋지 않다

⑩ 농촌 자연환경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자연환경에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연재해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폐비닐 등을 소각하지 않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농지의 축사 변경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에게 환경 보전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방치된 폐가는 미관상 좋지 않다
축사 신규 허가로 청정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관공서 증축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다
농촌지역 창고 사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절대 농지 구역 보존이 필요하다
농지 취득 후 용도 변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지양해야 한다
용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귀촌으로 인한 집단적인 주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산불 등으로 자연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강물 녹조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해야 한다
축산업 농가를 단지화시켜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다

⑪ 기타

농산물 가격에도 물가 변동이 반영되어야 한다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농과 영세농과의 지원 차이가 크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귀농·귀촌인에게만 지원이 주어져 기존 농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유류비 지원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품목별 정책은 작목별 농업으로 협동이 필요하다
농기계 수리 비용이 비싸다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영세농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귀촌으로 인한 집단적인 주거지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인들로 인하여 원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된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재해 및 풍수 보험 보상을 받은 다음 해에 재해 재발생 시 보상액이 줄어든다
농촌지역 음주 운전 단속
농업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은 농업 전문성이 떨어진다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되어야 한다
면세유 경감 조치 필요하다
농업 관련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업기관 직원의 농업 전문성이 떨어진다
수입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될 수 없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통상협상이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흡수하여 재분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도시민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농촌 정책

농업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이 안정적이지 않다
농업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농업·농촌이 유지, 보존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실제 농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 정부 지원이 과하다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 정책에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정책이 형평성이 떨어진다
전문가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
동물복지 정책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층에 맞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대농 위주의 규모화 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주요 농산물 수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면 단위의 주택은 농사와 무관하게 면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② 농촌관광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농촌 체험형 관광 개발이 요구된다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농촌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저렴한 관광상품 개발
차별적인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홍보가 부족하다
먹거리 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③ 농산물 유통, 가격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
중간 유통의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하여 가격 인하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간소화로 가격 안정화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유통단계를 줄여서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산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적정한 농산물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농산물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중간 유통 마진을 낮추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가격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산지와 소비자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가 요구된다
유통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중간 유통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수입 농산물이 너무 많다
축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이 너무 비싸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필요하다
정확한 수요량 파악으로 농산물 수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다
국산 농산물의 유통 과정을 줄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컬푸드를 통한 저렴한 농산물 제공이 요구된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산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매점매석을 없애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비축물을 제때 보급해 줄 것을 요망한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직거래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농산물 유통 시, 가격 마진이 없어야 한다
직거래 시,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배송 가격이 비싸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확대되어야 한다
쌀 등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특작물 재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폭등을 줄여야 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계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해야 한다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④ 농산물 안전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
농약을 최소화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
수요량 파악을 잘하여 수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되어야 한다
건강한 농산물 생산, 공급되어야 한다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유기농으로 재배되어야 한다
농작물 안정성 관리 및 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
계획성 있는 품목별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유기농산물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농약 및 화학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홍보가 필요하다
GMO 농산물 수입 규제가 요구된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농산물 가격 폭등을 줄여야 한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기농 및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과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자연친화적 농약 사용 도입이 필요하다
인체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농약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원산지 및 재배 환경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이력 표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품목별 재배를 권장해야 한다
병충해에 강한 농산물이 개발되어야 한다
종자사업에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품목별 정책

미래 먹거리 품목 개발이 요구된다

다양한 품목별 재배를 권장해야 한다

품목별 지원 사업은 주요 품목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 주어야 한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물 재배가 필요하다

대체 품목 개발도 필요하다

수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품목별 가격 정책 필요하다

품목별로 다양한 정책 필요하다

정확한 수요량 파악으로 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우수한 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특화 상품에 대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⑥ 영농자금, 농가 부채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야 한다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

영농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영농자금 지원 시 규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농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영농자금 지원 정책은 젊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부채에 따른 고통층 농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⑦ 농촌인력, 후계인력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후계 양성 필요)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젊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농 대상의 복지 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편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조성되어야 한다
첨단 과학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귀농 자녀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봉사자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농촌인력 중개센터의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해야 한다
영농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팜 내지는 기계화가 필요하다
농업에도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폐농가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영농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농업개발이 필요하다

⑧ 농지

토양 오염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농지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농지 소유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휴경지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농지가 부족하다

절대 농지구역 보존이 필요하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지 구입이 어렵다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농지 개발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농지 세금 우대가 필요하다

농지 활용을 너무 정부 마음대로 한다

농지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도시민도 농지 매매가 가능해야 한다

농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신규 청년농에게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가 요구된다

난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마을 단위로 공동주택을 지어 공동거주가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⑨ 농촌 지역개발, 복지

의료·문화·복지시설,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노인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복지 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

난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젊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 지원 필요

농촌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 관련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개발과 보존이 필요하다

개척 위주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젊은 층 대상 복지 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나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농촌 생활의 불편한 점을 지역민끼리 해소할 수 있는 농촌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⑩ 농촌 자연환경

지나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난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여야 한다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폐비닐, 건축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약 및 화학제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자연환경에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지양해야 한다
농업 폐기물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불 등으로 자연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공장으로 인한 오염이 많다
방치된 폐건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⑪ 기타

농촌 지원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책실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농업 관련 기관을 늘려야 한다
통상협상이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 수출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농가는 수출이 어렵다

설문 조사표(농업인·도시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총리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061-820-2325, 2228)



<농업인>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없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농정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22년 12월 09일(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 봉투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보내는 방법

우편(동봉하는 회송 봉투에 넣어 우편 회신), 이메일(frog78@krei.re.kr),
팩스(061-820-2403) 중 편한 방법 선택

***팩스 발송 시, 조사표가 양면이오니 페이지를 확인하여 발송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조사관련 문의

김동훈 전문연구원(061-820-2368), 박혜진 연구원(061-820-2228)

I. 농업경영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이다 ② 약간 불만족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1. (문 1번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② 농산물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③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④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⑤ 기타(무엇:)

문2.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전반적 만족 정도	1	2	3	4	5
2)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5
3)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5

문2-1. (문 2번에서 하나라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응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④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⑤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무엇:)

문3. 최근에 귀하는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① FTA 등 개방 확대 ② 농업 생산비 증가 ③ 영농자금 압박
④ 농업정책 효과 부족 ⑤ 일손 부족 ⑥ 판로확보 어려움
⑦ 농지 부족 ⑧ 농가 부채 증가 ⑨ 후계인력 부재
⑩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⑪ 태풍, 장마 피해
⑫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⑬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문8-2. (문 8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노후에도 농업에서 은퇴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경제적 문제, 생계 해결을 위해서 | ② 후계자가 없어서 |
| ③ 지금까지 해오던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 ④ 몇 대째 내려오는 가업이기 때문에 |
| ⑤ 농사일 밖에 모르기 때문에 | ⑥ 건강을 위해서 |
| ⑦ 무료함 해결에 좋기 때문에 | ⑧ 기타(무엇:) |

문9. 귀하가 농사를 더이상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 ① 자식에게 상속하고 노후를 의지할 계획이다 | |
| ② 농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 |
| ③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겠다 |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여 배당금을 받겠다 |
| ⑤ 농지연금에 맡겨 연금을 받겠다 | ⑥ 소유농지가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

문10. 향후(노후)에 자식, 친척 또는 주변인 등에게 영농기반(농지, 시설 등)을 물려줄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문10-1. (문10번에서 ①번 응답자만) 향후 영농기반을 물려줄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

- | | | | | | |
|-----------|------|------|------|----------|---------------------------------|
| ① 자녀 | ② 손자 | ③ 형제 | ④ 친척 | ⑤ 이웃, 지인 | ⑥ 기타(무엇:) |
| ⑦ 아직 모르겠음 | | | | | |

문10-2. (문 10번에서 ②번 응답자만) 영농기반을 물려줄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자식이나 손자가 없어서 | ② 물려줄 농지가 없거나 너무 작아서 |
| ③ 자식들이 자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 ④ 농지 이외 다른 자산이 없어서(노후 보장을 위해) |
| ⑤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 ⑥ 기타(무엇:) |

문1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향후 농업 은퇴계획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은퇴계획 따로 없음.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처럼 계속 종사 |
| ② 적당한 시기에 후계자에게 완전 승계 후 은퇴 |
| ③ 적당한 시기에 후계자에게 부분 승계 후, 본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후계자와 같이 농업 종사 |

문15. 귀하는 올해와 비교해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매우 악화될 것이다 ② 악화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개선될 것이다 ⑤ 매우 개선될 것이다

문16. 귀하께서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문17. 귀하께서 각 분야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각각 세 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문항	너무 멀리 있음	교통이 불편함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수준이 낮음	전문인력이 부족함	시설이 낙후함	이용 가격이 비쌌	전화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가 부족함	기타
1) 보건의료 서비스	1	2	3	4	5	6	7	8	9
2) 복지 서비스	1	2	3	4	5	6	7	8	9
3) 교육 서비스	1	2	3	4	5	6	7	8	9
4) 취마문화 서비스	1	2	3	4	5	6	7	8	9
5) 일자리 서비스	1	2	3	4	5	6	7	8	9

문18. 귀하의 마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공장, 제조업소 ② 창고 ③ 축사 ④ 태양광 발전 시설
⑤ 폐가, 방치된 공사(빈집) ⑥ 농막 ⑦ 그 외(무엇:)

문19.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원만하지 않다 ② 원만하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원만한 편이다 ⑤ 매우 원만하다

문20.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의식

문21. 귀하는 현재 농업인으로서는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1순위 () 2순위 ()

- ① 농업소득 감소 ② 생활비 부족 ③ 건강과 질병
- ④ 부모와 자녀 돌봄 ⑤ 주민화합과 인간관계 ⑥ 영농후계자
- ⑦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⑧ 안정적 노후생활 ⑨ 기타(무엇:)

문2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와 앞으로 농업·농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1위	2위
1)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2)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		

-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지역 활성화 ③ 여가 공간 활용
- ④ 문화유산 보존·계승 ⑤ 식품 안전성 향상 ⑥ 환경 보전 ⑦ 경관보전

문23. 귀하는 농업·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문24.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비슷하다
-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문25. 귀하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투자를 줄여야 한다 ② 현 수준 유지 ③ 투자를 늘려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26.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① 매우 비관적이다 ② 비관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희망적인 편이다 ⑤ 매우 희망적이다

문27. 귀하께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이 분야에 얼마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불충분하다 ② 대체로 불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28. 귀하는 10년 전 대비 현재와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구 분	개선됨 (될 것이다)	그대로임 (일 것이다)	악화됨 (될 것이다)	잘 모르겠음
1) 과거 10년 전 대비 현재	1	2	3	4
2) 향후 10년 후	1	2	3	4

문29. 귀하는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극한 기후 현상(심각한 가뭄, 홍수 등) 및 기후변화 ② 천연자원 부족(물, 토양, 어류 등) ③ 농장 수 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
④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 질병 발생 ⑤ 경기 침체와 빈곤
⑥ 농업 생산 정체와 수입 의존도 증가 ⑦ 지정학적 사건(전쟁, 테러 등)
⑧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 ⑨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
⑩ 기타 ⑪ 잘 모르겠음

문30. 귀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6년 50.8%에서 2020년 45.8%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밀'의 경우에 2016년 1.8%에서 2020년 0.8%, '옥수수'는 2016년 3.7%에서 2020년 3.6%로 떨어졌으며, '콩'만 24.6%에서 30.4%로 자급률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① 40% 미만 ② 40% 이상~50% 미만 ③ 50% 이상~60% 미만
④ 60% 이상~70% 미만 ⑤ 70% 이상~80% 미만 ⑥ 80% 이상

Ⅲ.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문31.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③ 대체로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32. 귀하께서는 올해 농식품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①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 | ② 기후변화(탄소중립) | ③ 식량안보 문제 |
| ④ 공익직불제 | ⑤ 일자리 창출 | ⑥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
| ⑦ 가축 질병(조류인플루엔자 등)과 방역 정책 | | ⑧ 건강한 먹거리 공급(로컬푸드 등) |
| ⑨ 농산물 가격 안정 | ⑩ 농작물 재해보험 | ⑪ 농업인안전보험 |
| ⑫ 농민수당 | ⑬ 농민·농촌기본소득 | ⑭ 영농형 태양광 보급 |
| ⑮ 동물복지 | ⑯ 기타(무엇:) | |

문33. 귀하는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 | ②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 | |
| ③ 신성장 동력 발굴 | ④ 식량안보 및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 |
| ⑤ 재해에도 안전한 농업 | ⑥ 농축산물 수급 안정 |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 ⑧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 ⑨ 여성농업인 육성 | ⑩ 농축산물 판로 확대 |
| ⑪ 농축산업의 유통 활성화 | ⑫ 농축산업계 지원 확대 | |

문34. 귀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이 얼마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
②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④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탄소중립을 알지 못한다
⑤ 정부의 정책 자체를 들어본 적 없다

문35. 귀하는 농업인들이 공익적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않다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문36. 귀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 ② 보장 재해 확대(법정전염병 등) | |
| ③ 보장 수준 확대 | ④ 정보공개(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한 출하량, 수입량 등) | |
| ⑤ 품질 평가 반영 | ⑥ 정부 보조율 확대 | ⑦ 신규 품종으로 확대 |
| ⑧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 ⑨ 가입(신청) 기간 확대 | ⑩ 기타(무엇:) |

⑦ 좋은 점 없음

⑧ 기타(_____)

40-2. (문 40번에서 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시 애로사항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 ② 주문량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기 어렵다
③ 요구하는 품질을 지키기가 어렵다 ④ 상품 검사가 까다롭다
⑤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
⑥ 소량의 농산물을 매일(또는 자주) 납품하는 것이 곤란하다
⑦ 애로사항 없음 ⑧ 기타(_____)

문41. 농업·농촌 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 농업·농촌 정책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④ 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하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번):()

V.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 ()시군

A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 ① 도시근교(대도시 인근에 위치) ② 평야지대(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③ 산간지대(준산간지대)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 세입니까? (만 세)

A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시작 년도 ()년, 실제 종사 기간()년째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 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 원 ~ 1억 원 미만 ⑨ 1억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⑩ 1억 5천만 원 ~ 2억 미만 ⑪ 2억 이상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 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 원 ~ 1억 원 미만 ⑨ 1억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⑩ 1억 5천만 원 ~ 2억 미만 ⑪ 2억 이상

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 원~70만 원 ③ 70만 원~100만 원
④ 100만 원~150만 원 ⑤ 150만 원~200만 원 ⑥ 200만 원~300만 원
⑦ 300만 원~500만 원 ⑧ 500만 원 이상

① 혼자 ② 부모님 ③ 배우자 ④ 자녀 ⑤ 형제자매, 친인척 ⑥ 친구 등 지인



<도시민>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조사		지역코드 (실시지점)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일반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대로 조사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혜진 연구원 (061-820-2228)		실사 기관	(주)칸타코리아 길지은 과장 (02-6276-7616) 김현진 과장 (02-3415-5207)		

SQ 1.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1-1. (SQ1에서 1. 서울 응답자만) 서울 권역	1. 강북서권 2. 강북동권 3. 강남서권 4. 강남동권
SQ1-2. (SQ1에서 9. 경기 응답자만) 경기 권역	1. 경기 북부권 2. 경기 남부권
SQ2. 지역규모	1. 특별/광역시 2. 일반 시
SQ3. 성별	1. 남자 2. 여자
SQ4. 연령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 면접 중단!!
SQ5.	귀하는 농촌(읍, 면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SQ6.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I.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없다	없는 편	보통	많은 편	매우많다
1)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1	2	3	4	5
2)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1	2	3	4	5

문2. 귀하는 농업·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문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1위	2위
1)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2)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		

-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지역 활성화 ③ 여가 공간 활용 ④ 문화유산 보존·계승
⑤ 식품 안전성 향상 ⑥ 환경 보전 ⑦ 경관 보전

문4. 귀하는 농업·농촌이 가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기능'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5. 다음은 귀하께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농촌'이 가진 다양한 기능

구 분	전혀 중요하지않다 ←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①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1	2	3	4	5	6	7

구 분	전혀 중요하지않다				매우 중요하 다			
	1	2	3	4	5	6	7	
② 국토 보존 및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1	2	3	4	5	6	7	
③ 창업·창농 등 농촌지역에 기반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한다	1	2	3	4	5	6	7	
④ 여가·휴가·체험활동 공간을 제공 한다	1	2	3	4	5	6	7	
⑤ 전통문화유산을 보전 및 계승 한다	1	2	3	4	5	6	7	
⑥ 정서적 만족감과 소속감을 제공 한다	1	2	3	4	5	6	7	
⑦ 탄소중립에 기여 한다	1	2	3	4	5	6	7	

2) '농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

구 분	전혀 중요하지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한다	1	2	3	4	5	6	7
② 환경자원과 생태계 보존에 기여한다	1	2	3	4	5	6	7
③ 자연경관 보호에 이바지한다	1	2	3	4	5	6	7
④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1	2	3	4	5	6	7
⑤ 귀농인에게 소득 획득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6	7
⑥ 치유와 여가활동 등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에 기여한다	1	2	3	4	5	6	7
⑦ 전후방 산업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다	1	2	3	4	5	6	7

문6.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찬성하는 편이다
④ 적극 찬성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7. 귀하는 농업인들이 공익적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8. 귀하는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비슷하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문9. 귀하는 농촌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찬성한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10. 귀하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농업지원정책 확대 ② 교육.문화시설 확대 ③ 보건.의료시설 확대
④ 농촌거주수당(기본소득) 지급 ⑤ 읍.면 소재지 활성화 ⑥ 일자리 확대
⑦ 귀농.귀촌 정책 강화 ⑧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 ⑨ 기타

문11.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① 매우 비관적이다 ② 비관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희망적인 편이다 ⑤ 매우 희망적이다

II.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문12. 귀하는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⑤ 잘 모르겠다

문12-1. (문 12번에서 ③,④번 응답자만)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②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③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④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⑤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⑥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⑦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⑧ 대규모 감염병(예: 코로나19)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⑨ 기타(무엇:)

문17.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문18.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안 좋다 ② 안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문1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투자를 줄여야 한다 ② 현 수준 유지 ③ 투자를 늘려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Ⅲ.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문20.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③ 대체로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21. 귀하께서는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 ② 기후변화(탄소중립) ③ 식량안보 문제
④ 공익직불제 ⑤ 일자리 창출 ⑥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⑦ 가축 질병(조류인플루엔자 등)과 방역 정책 ⑧ 건강한 먹거리 공급(로컬 푸드 등)
⑨ 농산물 가격 안정 ⑩ 농작물 재해보험 ⑪ 농업인안전보험
⑫ 농민수당 ⑬ 농민농촌기본소득 ⑭ 영농형 태양광 보급
⑮ 동물복지 ⑯ 기타(무엇:)

문22. 귀하는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 ②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
③ 신성장 동력 발굴 ④ 식량안보 및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⑤ 재해에도 안전한 농업 ⑥ 농축산물 수급 안정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⑧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⑨ 여성농업인 육성 ⑩ 농축산물 판로 확대
⑪ 농축산업의 유통 활성화 ⑫ 농축산업계 지원 확대

문23. 귀하께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이 분야에 얼마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불충분하다 ② 대체로 불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24. 귀하는 '식량'과 관련된 다음의 용어들을 알고 계십니까?

※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

※ **식량자급률**은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체 식량 중 그 해에 국내에서 생산한 식량의 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구분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1) 식량안보	1	2	3
2) 식량자급률	1	2	3

문25. 귀하는 10년 전 대비 현재와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구분	개선됨 (될 것이다)	그대로임 (일 것이다)	악화됨 (될 것이다)	잘 모르겠음
1) 과거 10년 전 대비 현재	1	2	3	4
2) 향후 10년 후	1	2	3	4

문26. 귀하는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극한 기후 현상(심각한 가뭄, 홍수 등) 및 기후변화 ③ 농장 수 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
② 천연자원 부족(물, 토양, 어류 등) ⑤ 경기 침체와 빈곤
④ 조류 독감과 같은 가축 질병 발생 ⑦ 지정학적 사건(전쟁, 테러 등)
⑥ 농업 생산 정체와 수입 의존도 증가 ⑧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
⑨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 ⑩ 기타 ⑪ 잘 모르겠음

문27. 귀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6년 50.8%에서 2020년 45.8%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밀'의 경우에 2016년 1.8%에서 2020년 0.8%, '옥수수'는 2016년 3.7%에서 2020년 3.6%로 떨어졌으며, '콩'만 24.6%에서 30.4%로 자급률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① 40% 미만 ② 40% 이상~50% 미만 ③ 50% 이상~60% 미만
- ④ 60% 이상~70% 미만 ⑤ 70% 이상~80% 미만 ⑥ 80% 이상

문28. 귀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이 얼마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
- ②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 ④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의 탄소중립을 알지 못한다
- ⑤ 정부의 정책 자체를 들어본 적 없다

문2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문30.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식품 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를 매겨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제품 구매
- ② 농축산물 및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포장재 사용 줄이기
- ③ 농축산물 유통경로가 짧은 농식품 구매(로컬푸드, 국내산 식재료 사용 등)
- ④ 농식품 폐기 줄이기
- ⑤ 저탄소 식단 실천(대체식품, 채식 등)

문31. 귀하는 평소 로컬푸드 매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 ① 거의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일에 1회 ⑤ 1달에 1회
- ⑥ 거의 이용하지 않음

문31-1. (문 31에서 ①~⑤ 응답자만) 로컬 푸드 이용이 귀하의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문항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로컬푸드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다	1	2	3	4	5
2) 로컬푸드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다	1	2	3	4	5
3)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1	2	3	4	5
4) 로컬푸드는 지역 농업 비전에 도움을 준다	1	2	3	4	5

문31-2. (문 31에서 ①~⑤ 응답자만) 귀하께서 평소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3가지만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음(찾은 결품) ②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없다
 ③ 다른 매장보다 가격이 비싸다 ④ 집에서 거리가 멀다
 ⑤ 주차장이 협소하다 ⑥ 편의시설(휴게실, 카페, 푸드코트 등)이 부족하다
 ⑦ 교통이 불편하다 ⑧ 운영시간이 짧다 ⑨ 배달이 안 된다
 ⑩ 온라인구매가 불가능하다 ⑪ 특별한 불편함이 없음 ⑫ 기타(무엇:)

※ 다음은 국외 비교 문항입니다.

문3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중요한 편이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33.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의 주요 책임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식품 제공 ② 동물복지 보장
 ③ 안정적인 식량 공급 확보 ④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함
 ⑤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 제공 ⑥ 농촌 생활의 장려 및 개선
 ⑦ 기타(무엇:)

문34. 귀하께서는 유기농 식품과 관련된 다음의 진술에 동의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잘 모르겠음
1) 일반 식품보다 비싸다	1	2	3	4	5
2) 살충제, 비료, 항생제 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한다	1	2	3	4	5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잘 모르겠음
3) 일반 식품보다 우수한 환경 관행으로 생산된다	1	2	3	4	5
4) 일반 식품에 비해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다	1	2	3	4	5
5) 일반 식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1	2	3	4	5
6) 일반 식품보다 맛이 좋다	1	2	3	4	5
7) 거주지의 슈퍼마켓, 상점 또는 시장에서 찾기 어렵다	1	2	3	4	5

문35. 농업·농촌 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농업·농촌 정책 ②농촌관광 ③농산물 유통, 가격 ④농산물 안전성 ⑤통상협상 ⑥품목별 정책 ⑦영농자금, 농가부채 ⑧농촌인력, 후계인력 ⑨농지 ⑩농업기관 ⑪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농촌 자연환경 ⑬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번)	

V.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⑤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DQ2.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본인 포함 총 (명)

DQ3. 귀댁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 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 원 ~ 1억 원 미만 ⑨ 1억 원 ~ 1억5천만 원 미만
 ⑩ 1억5천만 원 ~ 2억 미만 ⑪ 2억 이상

DQ4. 귀댁에서 월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 원~70만 원 ③ 70만 원~100만 원
- ④ 100만 원~150만 원 ⑤ 150만 원~200만 원 ⑥ 200만 원~300만 원
- ⑦ 300만 원~500만 원 ⑧ 500만 원 이상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 ③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업 종사자 등)
-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 ⑯ 기타 ⑰ 모름/무응답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김동원, 박혜진. (2003).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4).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5).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6).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7).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9).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10).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11).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준기, 윤종열, 박혜진. (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13).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14).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15).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1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환, 박혜진. (2017).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환, 박혜진. (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정희, 박혜진, 우병준. (2019). 농업·농촌에 대한 2019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 정도채, 박혜진. (2020).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박혜진. (2021).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기성, 이은수. (2021). 2020 한국의 직업 정보: 2020 KNOW 연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박경철. (2021). 2021 충남도청에 바란다③: 농업인편.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충남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김민석, 김태완. (2020).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uropean Union. (2022).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Eurobarometer.

KREI

www.krei.re.kr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933-5500 F. 061) 820-2211

